

# 한국문학탐방 I 발표 자료집

2024

(4월 3일 ~ 4월 5일)

전라남도 일대

한림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전공



# 목차

## I. 기본 사항

1. 한국문학탐방단 구성 .....	i
2. 준비물 및 주의사항 .....	ii
3. 버스 좌석 배정 .....	iii
4. 숙소 방 배정 .....	iv
5. 한국문학탐방 일정표 .....	v
6. 한국문학탐방 지도 .....	vi
7. 탐방지 정보 .....	vii
8. 보고서 양식 .....	viii

## II. 발표 자료

1. 정철	
1.1 [홍예슬] 문인 정철의 삶에 대해서 .....	1
1.2 [장혁] 사미인곡(思美人曲) .....	3
1.3 [서정원] 사미인곡의 문학사적 의의 .....	5
1.4 [윤준혁] 정철과 식영정 .....	6
2. 송순	
2.1 [전민정] 면앙정가의 저자, 송순 .....	8
2.2 [이경준] 면앙정가 .....	10
2.3 [김성중] 호남시단의 맹주 송순 .....	15
2.4 [정지우] 면앙정, 자연의 풍류 .....	17
3. 윤선도	
3.1 [설세현] 고산 윤선도의 생애와 문학사적 특징 .....	19
3.2 [이지오] 세속을 떠나 부르던 노래 .....	21
3.3 [김지현] 자연의 미덕을 노래하다 .....	23
3.4 [김주희] 윤선도 유적에 대하여 .....	25

4. 김영랑	
4.1 [이혜리] 슬프고도 찬란했던 영랑의 봄	27
4.2 [전태랑] 「모란이 피기까지는」 작품 해설	29
4.3 [이환] 김영랑이 기다리던 찬란한 봄	31
5. 정약용	
5.1 [홍현기] 정약용이 살아온 시간	33
5.2 [정원화] 정약용이 바라본 조선 후기 세상	34
5.3 [우주연] 다산의 생각을 담다	36
5.4 [김민주] 정약용의 유적지 기행	38
6. 이청준	
6.1 [최준우] 이청준(李清俊) 인생 발자취	40
6.2 [이정우] 이청준 서편제& 선학동 나그네	42
6.3 [소정민] 이청준(李清俊)이 바라보는 세상	43
7. 조정래	
7.1 [유채하] 조정래의 발자취를 따라서	45
7.2 [송문규] 조정래의 『태백산맥(太白山脈)』에 관한 고찰	47
7.3 [송종현] 조정래의 『아리랑』 작품	48
8. 김승옥	
8.1 [한별이] 글로 된 길을 걸어온 김승옥에 대하여	49
8.2 [박익삭] 김승옥 작가의 도피처이자 안식처 무진	50
8.3 [정수환] 서울, 1964년 겨울	52
8.4 [이희연] 김승옥, 새 시대의 감성과 건조함을 그려내다	53

## I-기본 사항

## 한국문학탐방단 구성

담당교수 : 신서인 교수님

인솔교수 : 이병기, 서은혜, 유인선 교수님

학생회장 : 김병규

부학생회장 : 김가은

답사부장 : 김성중

조교 : 이해미

조 번호	조장	조원
1	홍예슬(23)	윤준혁(23) 서정원(24) 장혁(24)
2	정지우(23)	김성중(19) 이경준(23) 전민정(24)
3	설세현(23)	이지오(23) 김주희(24) 김지현(24)
4	이환(23)	이혜리(23) 전태랑(24) 고진현(19)*
5	정원화(19)	우주연(23) 김민주(24) 홍헌기(24)
6	최준우(23)	이정우(23) 소정민(24) 김준원(19)*
7	송문규(23)	송종현(23) 유채하(24)
8	이희연(22)	박이삭(23) 정수환(23) 한별이(24)

\*객원

조	구분	작가	작품	지역	답사지
1조	고전시가	정철	사미인곡, 성산별곡	담양	면양정
2조	고전시가	송순	면양정가	담양	식영정, 가사문학관
3조	고전시가	윤선도	오우가, 어부사시사	해남	윤선도유적지
4조	현대시	김영랑	모란이 피기까지는	강진	영랑생가
5조	고전시가	정약용	탐진촌요; 목민심서, 경세유표, 흙흙신서	강진	다산초당
6조	현대소설	이청준	선학동 나그네, 서편제	장흥	이청준생가
7조	현대소설	조정래	태백산맥, 아리랑	보성	태백산맥문학관
8조	현대소설	김승옥	무진기행, 서울, 1964년 겨울	순천	순천만

## 준비물 및 주의사항

### ◆ 준비물

답사 자료집, 필기도구, 신분증, 편한 옷과 신발, 세면도구, 개인 약, 우산 등

### ◆ 주의사항

#### 1. 탐방 중 주의사항

- (1) 인솔자(학생회장, 부학생회장, 답사부장, 조교, 교수)의 지시를 따른다.
- (2) 학교 및 학과의 일원으로서 명예롭게 행동한다.
- (3) 정해진 일정 시간을 엄수한다.
- (4) 명찰을 항상 패용한다.
- (5) 발표시 크고 명확한 목소리로 발표한다.
- (6) 다른 조의 발표를 경청한다.
- (7) 자유 관람 시에도 안전을 위하여 조별로 모여서 이동한다.
- (8) 개인행동 및 무단이탈을 하지 않는다.
- (9) 도로 횡단 시 차량에 유의한다.
- (10)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 (11) 신체에 이상이 있을 시 인솔자에게 빠르게 알린다.
- (12) 도난 우려가 있는 귀중품은 소지하지 않는다.
- (13) 서로가 배려하며 즐겁게 탐방한다.

#### 2. 차량 내 주의사항

- (1) 반드시 안전띠를 착용한다.
- (2) 차량번호를 숙지해둔다.
- (3) 탐방 차량임을 확인하고 탑승한다.
- (4) 승차하기 전 신발을 털어 차내 먼지를 최소화한다.
- (5) 하차 시 자신이 버린 쓰레기는 모아서 정리한다.
- (6) 하차 시 기사님께 감사 인사를 표한다.

#### 3. 숙소 내 주의사항

- (1) 정해진 일정에 따라 행동한다.
- (2) 서로의 건강을 위하여 개인위생에 신경쓴다.
- (3) 일정에 지장을 줄 정도의 지나친 음주는 피한다.
- (4) 인솔자의 허락 없이 개인행동 및 무단이탈을 하지 않는다.
- (5) 반드시 자신이 배정된 방에서 취침한다.
- (6) 숙소에서 나올 시 자신의 물건을 두고 나오지 않도록 확인한다.
- (5) 화재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비상구의 위치를 확인해둔다.

## 버스 좌석 배정

기사님			계단	
이혜미 (조교)			신서인 선생님	
김성중 (답사부장)			이병기 선생님	
서은혜 선생님			유인선 선생님	
이희연	김가은 (부학회장)		설세현	우주연
김주희	소정민		유채하	전민정
이정우	장혁		송문규	윤준혁
박이삭	송종현		전태랑	홍현기
이지오	김지현		이혜리	정수환
정지우	홍예슬		한별이	김민주
서정원	최준우		이환	이경준
고진현	김준원		김병규 (학회장)	정원화

## 숙소 방배정

### 소노벨 진도

방 번호	방 배정	인원 수	합계
1	김병규(방장), 윤준혁, 서정원, 장혁	4	총 18명
2	김성중(방장), 이경준, 박이삭, 설세현	4	
3 (간담회실)	김준원(방장), 이환, 전태랑, 송문규, 송종현	5	
4 (간담회실)	정원화(방장), 홍현기, 최준우, 이정우, 고진현	5	
5	김가은(방장), 이혜미, 이혜리, 정수환, 전민정	5	총 15명
6	이희연(방장), 홍예슬, 정지우, 소정민, 유채하, 한별이	6	
7 (간담회실)	이지오(방장), 우주연, 김민주, 김지현, 김주희	5	

### <객실 비상 대피도>



## 한국문학탐방 일정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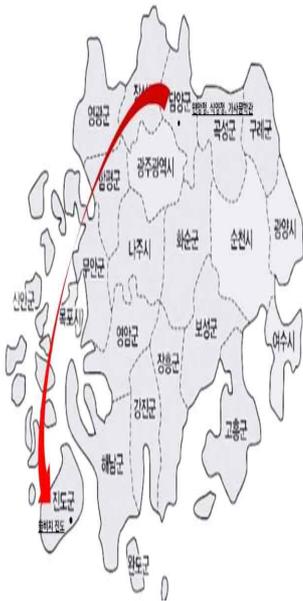
\*전라남도 일원: 1일차(담양) / 2일차(해남, 강진, 장흥) / 3일차(보성, 순천)

구분	1일차 4/3(수)	2일차 4/4(목)	3일차 4/5(금)	
07	07:40 집합 (학교-대학본부)	07:30 기상	07:30 기상	
08	08:00 출발 (학교 대학본부) 및 이동 (5시간)	08:00 출발 및 이동 (10분) 08:10 조식 (용문가든)	08:00 조식 (해녀소녀식당)	
09		09:00 출발 및 이동(1시간)	09:00 출발 및 이동 (2시간)	
10		10:00 윤선도 유적지 도착 <b>③조 발표 - 윤선도</b>		
11		11:00 출발 및 이동 (30분) 11:30 영랑생가 도착 <b>④조 발표 - 김영랑</b>		11:00 태백산맥문학관 도착 <b>⑦조 발표 - 조정래</b> 11:40 출발 및 이동 (20분)
12		12:25 출발 및 이동(5분) 12:30 중식 (보은식당)		12:00 중식 (순천만일품)
13	13:00 중식(제주밥상) 13:40 출발 및 이동 (5분) 13:45 소쇄원 도착	13:30 출발 및 이동 (20분)	13:00 순천만습지 도착 <b>⑧조 발표 - 김승옥</b>	
14	14:25 출발 및 이동 (5분) 14:30 식영정, 가사문학관 도착 <b>①조 발표 - 정철</b>	14:00 다산초당 도착 <b>⑤조 발표 - 정약용</b>	14:00 출발 및 이동 (5시간)	
15	15:30 출발 및 이동 (20분)	15:30 출발 및 이동 (1시간)	19:00 도착 (학교-대학본부) 및 해산	
16	16:00 면양정 도착 <b>②조 발표 - 송순</b>	16:30 이청준생가 도착 <b>⑥조 발표 - 이청준</b>		
17	16:30 출발 및 이동 (2시간)	17:00 출발 및 이동 (2시간)		
18	18:30 석식 (용천식당)			
19	19:30 출발 및 이동 (5분) 19:40 숙소 입실 (쓸비치 진도) 20:00 소감문 작성 20:30 간담회	19:00 석식 (대동식당)		
20		20:00 출발 및 이동 (20분) 20:20 숙소 입실 (쓸비치 진도) 20:30 소감문 작성 21:00 간담회		
21				
22	22:00 개인 정비 및 취침	22:00 개인 정비 및 취침		

## 한국문학탐방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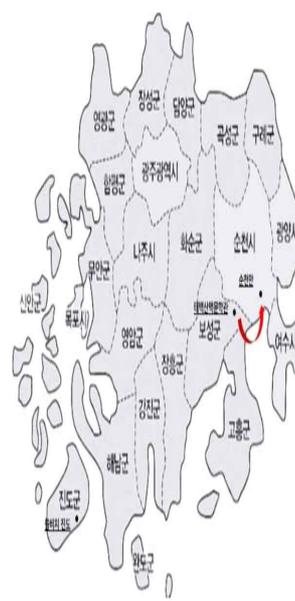
<1일차>



<2일차>



<3일차>



## 탐방지 정보

구분	지역	장소	전화번호	주소
탐방장소	담양	소쇄원	061-381-0115	전남 담양군 가사문학면 소쇄원길 17
	담양	식영정	061-380-3141	전남 담양군 가사문학면 가사문학로 859
	담양	가사문학관	061-380-2700	전남 담양군 가사문학로 877
	담양	면양정	061-380-3151	전남 담양군 봉산면 면양정로 382-11
	해남	윤선도유적지	061-530-5548	전남 해남군 해남읍 녹우당길 135
	강진	영랑생가		전남 강진군 강진읍 영랑생가길 15
	강진	다산초당	061-430-3911	강진군 도암면 다산초당길 68-35
	장흥	이청준생가	061-863-7071	전남 장흥군 회진면 진목1길 9-9
	보성	태백산맥문학관	061-850-8653	전남 보성군 벌교읍 홍암로 89-19
	순천	순천만	061-749-6052	전남 순천시 순천만길 513-25
숙소	진도	솔비치 진도	02-1588-4888	전남 진도군 의신면 송군길 30-40
식당	광주	제주밥상	062-266-2271	광주 북구 수리마을길 49 1층
	진도	용천식당	061-544-1073	전남 진도군 의신면 초평길 64
	진도	용문가든	061-542-5557	전남 진도군 고군면 회동길 14-16
	강진	보은식당	061-432-8789	전남 강진군 강진읍 영랑로 43
	진도	대동식당	061-543-1255	전남 진도군 진도읍 남산로 130-53
	진도	해녀소녀식당	061-542-2737	전남 진도군 의신면 송군길 3-6 1층
	순천	순천만 일품	061-742-5799	전남 순천시 순천만길 668

보고서 양식  
<한국문학탐방 보고서>

조		학번		이름	
일시	2024년 4월 일 ( 일차)				
탐방 장소	탐방 내용				
<b>【문학 창작 기반과 관련한 감상】</b>					
<b>【발표 내용 및 답사 일정에 관한 의견】</b>					

II-발표 자료

## 문인 정철의 삶에 대해서

- 정철의 생애

국어국문학전공 20231107 홍예슬



정철(鄭澈)은 조선시대에 태어난 인물로, 좌의정과 우의정, 전라도체찰사 등을 역임했던 문신이자 문인이다. 정철의 아호는 송강이며, 이는 그가 평창으로 내려갔을 때, 집 앞에 있던 강을 이르는 말이다. 1536년 12월 6일 서울, 부친 돈녕부판관 정유침과 모친 죽산 안씨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의 집안 형편은 그리 좋지는 않았지만, 청백의 가풍을 이어왔다.<sup>1)</sup> 그러나 세 명의 누님 중 맏누님이 인종의 귀인으로 입궐하게 된 것을 기점으로 그의 집안 형편이 나아졌으며, 정철은 당시의 왕이었던 명종과 유대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다. 안타깝게도 그의 평화롭던 유년 시절은 오래 지속되지 못하였다. 그의 나이가 10세가 되던 해인 1545년부터 평화롭던 유년 시절을 깨는 비극이 시작되었다. 1545년 발생한 을사사화로 인해 정철의 형님과 누이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2년 뒤인 1547년에 또 한 번의 사화를 맞이하였다. 이것으로 인하여 부친은 귀양을 가게 되었고, 맏형은 유배를 가던 중 이른 죽음을 맞이하였다. 그리고 둘째 형은 이 사화를 기점으로 은거를 시작하기도 하였다. 갑작스러운 비극을 맞이한 정철은 아버지의 유배지를 따라가서 아버지와 함께 유배지에서 생활하였다. 1551년, 정철이 16세가 되던 해에 부친이 원자 탄생 특사를 이유로 유배지에 풀려나게 되었다. 이때 그의 정신적 고향이라고도 할 수 있는 전라남도 담양군 창평으로 이주하여 정착하게 되었다. 정철은 11년간의 청년 시절을 창평에서 보내게 되는데, 이곳에서 문학적, 학문적, 인격적인 소양을 비로소 갖추게 되었다. '성산별곡'의 배경이 되는 성산 아래에서 시적 자아를 확립할 수 있었으며 면양정 송순을 비롯한 석천 임억령, 하서 김인후, 고봉 기대승 등 호남의 대 스승으로부터 학문을 배우고, 문학적인 재능을 키워나갔다. 면양정 송순과 석천 임억령으로부터는 문학적 사사를 얻었고, 하서 김인후와 고봉 기대승으로부터는 학문적 사사를 얻었다고 알려진다. 그가 문학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지금까지 명성을 얻을 수 있는 요인에는 물론 천부적인 소질도 있겠지만, 이외에도 많은 석학과 문장가들을 곁에 두면서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받았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sup>2)</sup>

정철은 26세의 나이로 진사 시험에서 일 등으로 합격했으며, 다음 해에 27세의 나이로 문과 별과에 장원급제하여 성균관 전적을 제수하고, 지제교를 겸임하였다. 이렇듯 그의 평화로운 관직 생활이 계속해서 지속될 줄 알았으나 그렇지 못했다. 명종의 종형인 경양군이 살인을 저지른 사건에 대하여 법 집행을 맡은 정철에게 명종이 개인적인 관용을 부탁하였으나, 그는 우직한 성품을 굽히지 않고 경양군을 처형하기에 이른다. 이에 정철은 오랜 시간 동안 한직에 머물러야만 했다. 1570년, 35세 4월에 부친상을 당하여 복을 입게 되었으나 2년 후인 1572년 6월에 복을 벗고 환로에 나아가 직강에 제수되었다. 그러나 이듬해 4월에 모친상으로 또다시 복을 입었다. 또, 2년 후인 1574년 6월 40세의 나이로 복을 벗고 사인을 제수받았으며 홍문관 직제학, 성균관 사성을 순차적으로 제수 받았다. 이 시기에 조정의 유학자들이 둘로 대립

1) 김학성, 『정철(鄭澈)』,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 송지은, 「송강 정철 문학 연구 : 생애, 사상, 가사 작품 분석의 측면에서」,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1998, pp.8~12.

하면서 봉당의 조짐을 보였다. 정철은 이러한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기에 사직을 결심하고 어린 시절을 보냈던 창평으로 돌아갔다. 다시 돌아온 창평에서 그는 문학 창작활동에 전념하였다. 정철은 45세 1월에 강원도 관찰사를 제수받고, 다시 벼슬길에 올랐다. 이 시기에 지은 작품이 『관동별곡』과 『훈민가』이다. 이렇게 왕에게 제수받고 사직하기를 반복하던 정철은 1593년 12월 18일 58세의 나이로 강화도에서 생을 마감하였다.<sup>3)</sup>

#### 《참고문헌》

김학성, 『정철 (鄭澈)』,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50998>

송지은, 「송강 정철 문학 연구 : 생애, 사상, 가사 작품 분석의 측면에서」,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1998, pp.1~85.

김진옥, 「정철 연구(I)」, 『인문과학연구』 제21호, 조선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9, pp.91~115.

---

3) 김진옥, 「정철 연구(I)」, 『인문과학연구』 제21호, 조선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9, pp.97~107.

## 사미인곡(思美人曲)

- 작가의 인생이 담긴 여인의 목소리

인문학부 20241084 장혁

아름다운 여인이 연모하는 곡, '사미인곡(思美人曲)'을 풀어서 읽어보면 이렇게 접근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제목만 본다면 서정적이고 애상적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속에는 왕에 대한 원망과 신세 한탄, 변함없는 충성심의 강조 등 서정적 특징뿐만 아니라 충신 연주 시사적 특징을 가지게 되었다. 그렇다면 왜 왕에 대한 한탄과 충성심을 담은 곡이 '사미인곡'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걸까. 이 작품의 작가인 정철(鄭澈)은 자신을 아름다운 여인에 일치시키며 여성 화자의 목소리를 빌리게 된다. 그리고 왕을 생이별한 남편에 일치시킨다. 이로써 여인과 생이별한 남편을 원망하기도 그리워하기도 하는 이 감정을 풀어내며 정철 자신이 왕을 그리워하는 그 감정을 드러내는 데에 사용한다. 작중 여인의 심리는 정철의 심리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당시 정철의 상황을 그대로 드러낸다. 서사에서는 당시 정철의 정치적 상황을 알아볼 수 있다.

이 몸 삼기실 제 님을 조차 삼기시니,  
훈싱 緣分(연분)이며 하늘 모를 일이런가.  
나 허나 젊어 님고 님 허나 날 괴시니,  
이 믿음 이 사랑 견줄 디 노여 업다.

이 몸 생겼을 때 입을 좇아 생겼으니,  
한평생의 연분임을 하늘이 모를 일이던가.  
나 하나 젊어 있고 입 하나 날 사랑하시니,  
이 마음 이 사랑 견줄 데가 전혀 없다.

-정철, '사미인곡' 중

위 구절은 자신(여인)을 필요로 하여 옆(남편의 옆)에 두었다가 늙어서 자신을 떠난 남편을 원망한다. 이것은 정철이 정계에 몸을 담았다 배척당하는 일화를 그려준다. 정철은 선조 시절 좌의정으로서 왕과 가까운 인물 중 한 명이였다. 그러나 동인에 의한 정치적 배척으로 그는 궁을 떠나 고향인 창평으로 돌아오게 된다. 이는 마치 좌의정의 자리에 올랐지만, 시간이 지나 그 필요가 줄어 이별 당한 여인의 모습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나간 남편에 대한 그리움 표현, 다시 말해 멀리 떨어진 왕에 대한 충성심 표현이 주된 내용이다. 특히 1년 사계(四季)에 맞는 배경적, 물질적 요소를 대입함으로써 충성심이 오랫동안 계속, 변치 않는다는 그 마음가짐을 강조한다.

東風(동풍)이 건듯 부러 積雪(적설)을 헤터내니,  
窓(창) 밖기 심근 梅花(미화) 두세 가지 피여세라.  
갓득 冷淡(냉담)헌디 暗香(암향)은 므스 일고.  
黃昏(황혼)의 달이 조차 벼마티 빛최니,  
늦기논 듯 반기논 듯 님이신가 아니신가.  
더 梅花(미화) 것거 내어 님 겨신 디 보내오져.  
님이 너를 보고 엇더타 너기실고.

동풍이 건듯 불어 쌓은 눈을 헤쳐 내니,  
창밖에 심은 매화 두세 가지 피었구나.  
가득이나 냉담한데 그윽한 향은 무슨 일인고.  
황혼의 달이 쫓아와 베갯머리에 비치니,  
흐느끼는 듯 반기는 듯 임이신가 아니신가.  
저 매화 꺾어 내어 임 계신 데 보내고 싶구나.  
임이 너를 보고 어쩡다 여기실꼬.

-정철, '사미인곡' 중

위 구절은 본사의 첫 부분으로 계절감을 알아볼 수 있는 요소로 동풍과 동백이다. 그러나

동풍은 대개 겨울에 부는 바람이지만 다르게 해석해 보면 겨울의 동풍이 지고 동백이 피어 봄이 다가옴을 암시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추운 겨울에서 따스한 봄을 앞두고 그 역경 속에서 피어난 매화꽃을 꺾어 임, 즉 왕에게 보낸다는 표현은 자신이 가진 왕에 대한 충성을 나타낸다. 겨울 말에 언제나 피어나는 매화같이 언제나 자신의 충성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본사에 구절은 여름, 가을, 겨울과 그 시기도 각각 나타나 있다. 푸른 잎의 무성함을 나타낸 녹음은 여름을 암시한다. 이 시기 여인은 임을 위해 비단에 오색 실로 훌륭한 옷을 지어낸다. 임을 위한 옷, 정철의 상황에서는 왕의 격식에 맞는 옷차림을 준비한 것으로 이것은 왕을 향한 사랑, 애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어서 가을의 추워진 날씨를 나타내는 서리 김, 여인은 맑은 빛을 쥐어 궁궐에 내걸기를 희망한다. 이 내걸린 맑은 빛은 궁궐만이 아니라, 온 세상 구석구석을 비취 주기를 소망하고 있다. 정철은 비록 왕과 떨어져 자신의 의견을 전달할 수는 없지만, 왕이 올바른 정치를 펼치며 백성들의 안위를 추구하고 원했음을 알 수 있다. 더 나아가 깊은 산골을 대낮같이 만들어 달라는 구절은 멀리 떨어진 자신의 고향까지 비추어 왕이 정철을 돌아 봐주길 간곡하게 바랐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겨울의 환경을 보여주는 백설, 흑시나 임이 추울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여인은 봄기운과 해를 보내고자 했다. 이것은 정철이 왕에게 생활에 보탬이 되고자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정철의 <사미인곡>은 심리에 내포된 분노를 확인해 볼 수 있다. 봄에는 매화를 꺾어 임에게 보내고자 한다. 여름에는 옷을 짜 백옥함에 넣었지만 임이 계신 곳은 산과 구름에 가려져 있다. 가을에는 빛을, 겨울에는 봄과 해를 보내고 싶지만 실현해낼 수 없다. 산과 구름이 험하다는 내용은 정철 본인이 왕에게 충성과 애정을 표현하고 싶으나 그러지 못하게 막는 방해물, 즉 자신을 정계에서 밀어내 왕과 거리를 두게 만드는 정적, 동인의 존재로 볼 수 있다. 작가인 정철은 이러한 정적에 대한 분노를 표현함을 알아볼 수 있다. 이러한 요소들 덕분에 화자의 태도를 적극적이라고 볼 수 있다.<sup>4)</sup>

정철의 '사미인곡'은 이후 등장하는 작품, 그중에서도 여성 화자를 사용한 작품의 양식을 공고히 하였다. 또한 그러한 가사를 활용해 자신의 처지와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기도 했다. '사미인곡'을 통해서 정철의 문학작품을 읽어보고 당시의 흐름과 시련, 감정을 이해해 보는 것은 어떨까.

#### 《참고문헌》

- 고성혜, 「'미인계' 가사의 감성과 미의식-정철과 류도관의 <사미인곡>을 대상으로-」, 『호남학』 제55호,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2014, pp.1~23.  
서원섭, 『사미인곡(思美人曲)』,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4) 고성혜, 「'미인계' 가사의 감성과 미의식-정철과 류도관의 <사미인곡>을 대상으로-」, 『호남학』 제55호,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2014, pp.13~15.

## 사미인곡의 문학사적 의의

- 정철의 삶과 그의 문학에 관하여

인문학부 20241045 서정원

‘사미인곡(思美人曲)’을 지은 정철(鄭澈)은 조선 중기의 활동하였던 정치인이자 시인이다. 정철은 50세가 되던 1585년부터 1589년까지 4년간 벼슬자리에서 물러나 경기도 고양에 머물러 있다가 창평으로 낙향하였다. 이 시기는 당쟁 시대 중 동인 세력이 조정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서인을 몰아붙일 때였다. 정철로서는 동인 세력의 일방적인 논척으로 어쩔 수 없이 물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장기간 지내야 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매우 실의에 빠져 있었던 시기였다. 이 시기에 ‘성산별곡’, 그리고 ‘사미인곡’과 ‘속미인곡’을 지었다.<sup>5)</sup>

정철은 조선조 가사 문학의 빼어난 작자라는 평가에 이의를 가질 사람이 없을 정도로 훌륭한 가객이다. 당시 한문을 했던 사람들은 우리 문자나 말을 언문(諺文)이라거나 언서(諺書), 또는 방언(方言), 이어(俚語), 이언(俚言)이라 폄시(貶視)했는데 그런 사람 중에서도 한시문의 대가였던 송강은 우리말 우리글로서 새로운 장르를 최고도의 경지까지 끌어올린 가사와 시조의 작자라는 점에서 조선조의 빼어난 작자라고 해도 조금도 지나치지 않는다. 송강은 중국의 사부와 병려문의 문학 장르의 영향을 받았으면서도 우리의 가사 장르는 그러한 흔적이나 양태가 남아있지 않은 것처럼 우리의 정서가 유려하게 녹아들어 간 문학 양식으로 완성되어 세계적인 문학 양식으로 정립시킨 작자라는 점에서 높게 평가할 수가 있다.<sup>6)</sup> 이처럼 송강 정철은 한국 문학사의 측면으로 보았을 때 상당한 무게감을 가지고 있는 작품이다. 그의 작품들은 조선 후기 문인들에게 귀감이 되었으며, 한국 문학의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다른 측면에서 그의 정치적 행보와 그의 문학을 복합적으로 평가하여 그에 대해 판단을 내리고는 하지만 정치적 행보를 제외하고 그의 문학적 성취만을 고려했을 때, 그의 시조는 한국의 문학사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친 좋은 시조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 《참고문헌》

- 최상은, 「특집 : 고전시가의 이념과 현실, 그리고 공간과 장소 의식 탐색 -송강가사를 통한 가능성 모색-」, 『韓國 詩歌研究』 제34호, 한국시가학회, 2013, pp.5~34.
- 전일환, 「한국문학사상 송강가사의 위상」, 『한국언어문학』 제55호, 한국언어학회, 2005, pp.275~292.

5) 최상은, 「특집 : 고전시가의 이념과 현실, 그리고 공간과 장소 의식 탐색 -송강가사를 통한 가능성 모색-」, 『韓國 詩歌研究』 제34호, 한국시가학회, 2013, pp.6~7.

6) 전일환, 「한국문학사상 송강가사의 위상」, 『한국언어문학』 제55호, 한국언어학회, 2005, pp.8~9.

## 정철과 식영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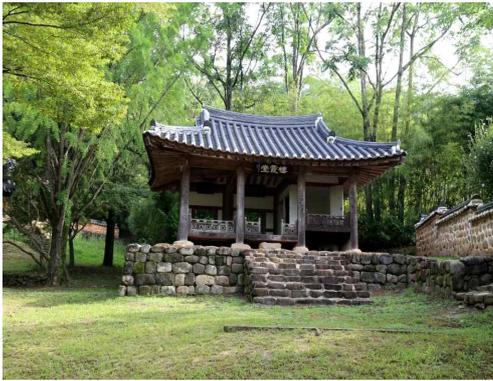
-식영정에서 조화를 이룬 자연과 문학

국어국문전공 20231063 윤준혁

식영정(息影亭)은 ‘그림자가 쉬고 있는 정자’라는 뜻을 지닌 전라남도 담양군에 위치한 정자이다. 서하당 김성원이 그의 스승인 임억령을 위해 1560년에 지은 건물로 정면 2칸 측면 2칸에 단층 팔각지붕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는 기와를 올렸으나, 남부의 정자들은 정유재란 때 대부분 불탔기에 현재는 새로 지은 것들을 볼 수 있다.<sup>7)</sup> 김성원은 식영정의 옆에 자신의 호를 딴 정자인 서하당(棲霞堂)이라는 정자를 지었다. 서하당은 없어졌다가 최근 복원되었다.<sup>8)</sup>

김성원은 정철의 처 외당숙이다. 김성원은 정철보다 11살이 많으나, 환벽당에서 함께 공부한 동기이다. 당시에 사람들은 임억령, 김성원, 고경명, 정철 네 사람을 식영정 사선이라고 불렀다. 이들이 성산의 경치 좋은 곳을 택하여 글을 지은 식영정이십영(息影亭二十詠)이 존재한다. 특히 정철의 대표적인 작품인 성산별곡(星山別曲)은 식영정이십영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작품이다. 식영정이십영의 각 수의 제목들이 거의 빠짐없이 성산별곡에 등장하며, 두 작품이 창작된 배경 역시 전라남도 담양군 창평면에 위치한 성산(星山)으로 같다.<sup>9)</sup>

식영정은 성산을 바라볼 수 있는 언덕 위에 있다. 돌계단으로 오르는 길과 오른편으로는 광주호가 자리 잡고 있어 멋진 절경을 자아낸다. 식영정의 아래로는 자미탄(紫薇灘)이라는 이름의 배롱나무가 줄지어 피어있는 개울이 흘러넘을 짐작할 수 있다.<sup>10)</sup> 돌계단을 올라 식영정에 들어서면 오른쪽에 오랜 시간을 견딘 소나무가 한 그루 서 있다. 이 소나무의 뒤로 정철의 <성산별곡> 시비가 놓이고 있다. 원래 소나무의 앞에 있었으나, 위치 문제로 논란이 일자 현재의 위치로 옮겨졌다.<sup>11)</sup> 식영정은 앞쪽 왼편을 풍판으로 둘러는데, 서향하고 있어 햇빛을 가려야 했기 때문이다. 여름에는 뜨거운 햇살을 막고 추운 겨울에는 차가운 북서풍을 어느 정도 막아주는 역할을 했다.<sup>12)</sup>



7) 정미림, 「[2018 한국주거학회 춘계답사 후기] 담양의 식영정, 환벽당, 소재원, 무월마을」, 『한국주거학회 제13권 제1호』, 한국주거학회, 2018, pp.32~33.

8) 조상우, 「<息影亭記>의 寓言 글쓰기와 文學史的 意義」, 『溫知論叢』, 온지학회, 2007, p110.

9) 김진옥, 「성산별곡과 식영정 20 영의 관계 고찰」, 『한국시가문화연구』, 한국고시가문학회, 2001, p.120.

10) 임준성, 「식영정에 비친 임억령의 삶과 현판」, 『한국시가문화연구』, 한국시가문화학회, 2021, pp.37~38.

11) 위의 논문, pp.37~38.

12) 위의 논문, pp.37~38.

《참고문헌》

- 임준성. 「식영정에 비친 임억령의 삶과 현판」, 『한국시가문화연구』, 한국시가문화학회, 2021, pp.37~38.
- 정미림. 「[2018 한국주거학회 춘계답사 후기] 담양의 식영정, 환벽당, 소쇄원, 무월마을」. 『한국주거학회 제13권 제1호』, 한국주거학회, 2018, pp.32~33.
- 조상우. 「<息影亭記>의 寓言 글쓰기와 文學史的 意義」, 『溫知論叢』, 온지학회, 2007, pp.103~126.
- 김진욱. 「성산별곡과 식영정 20 명의 관계 고찰」, 『한국시가문화연구』, 한국고시가문학회, 2001, pp.103~123.

## 면앙정가의 저자, 송순

- 송순의 생애

인문학부 20241085 전민정

조선 중기의 문신이자 성리학자였던 송순(宋純)은 1493년 음력 11월 14일(성종 24년)에 3형제 중 장남으로 출생하였다. 그의 아버지는 증이조판서 송태(宋泰)이고, 그의 어머니는 순창 조 씨이다. 그는 전라남도 추성군 기곡면 상덕리 출신이며 본관은 충청도 충주목에 속해있는 신평현(新平縣)이다. 송순의 자는 수초(守初), 성지(誠之)이며 호는 기촌(企村), 면앙정(俛仰亭)이다. 송순은 어려서부터 용모가 뛰어나고 총명하여 독서를 좋아하였으며 예술에 재능이 있었다. 그는 3살부터 글을 읽을 줄 알았던 영재였으며, 9살 때는 스스로 곡조문(哭鳥文)을 지었다.<sup>13)</sup>

그는 21세(중종 8년)의 이른 나이에 시와 부의 창작 능력을 시험하는 진사시에 합격하여 급제하였고, 27세(중종 14년) 10월에 별과에서 급제하였다. 28세(중종 15년)에는 동호(東湖) 독서당에 들어가 사가독서(賜暇讀書)를 마쳤으며, 29세(중종 16년) 봄에는 '남관백설', '석문청송', '동정황감' 등의 시들을 써서 1등을 했고, 상으로 활을 한 자루를 받았다. 또한 30세(중종 17년)에는 승정원 주서가 되어 재직하였지만, 그해 봄에 관직을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고향으로 돌아와서 '자성(自省)'이라는 시를 지었다.<sup>14)</sup>

31세(중종 18년)에 예문관 봉교로 근무하였고, 바로 그해 8월에 그의 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시게 되어 출상 절차를 거쳤다. 같은 해 11월에는 묘 근처에 풍수당을 지어서 아버지의 시묘살이를 하였다. 32세(중종 19년)에 기촌 서북이라는 곳에서 면앙정 터를 매입하였고, 33세(중종 20년)에 세자시강원 설서였다가 홍문관 지제교 겸 경연 검토관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그러나 35세(중종 22년) 여름쯤에 잠시 관직을 그만두고 다시 그의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해 가을에 사간원 정언으로 다시 복귀하였고, 이때 임시로 시행하던 여러 별시 중 하나인 정시가 있어 '도원팔경시'로 2등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44세(중종 28년)가 되던 해에 조선 중기의 문신이었던 김안로(金安老)가 권력을 잡게 되자 또다시 그의 고향으로 귀향하여 시를 지으며 지냈다. 그때 그가 고향의 정경에 심취하며 지은 시가 바로 '면앙정가'이다.<sup>15)</sup>

그러나 다음 해 45세(중종 32년)가 되던 때에 김안로(金安老)가 임금이 내린 독약으로 사사되자 다시 홍문관부응교로 복귀하였고, 다시 사헌부집의에 올랐다. 이어서 홍문관부제학, 충청도어사 등 여러 관직을 지냈으며, 47세(중종 34년)에는 승정원우부승지가 되었다. 그해 4월에 명나라에서 요동도사(遼東都司)가 오자 외국 사신을 영접하는 일을 맡는 관직인 선위사가 되었다. 그 후로도 경상도관찰사, 사간원대사간 등의 주요 관직들을 거쳤으며 50세(중종 37년)에 문정황후의 남동생이자 문신 윤원형과 문신 황헌(黃憲) 등의 모함으로 인해 전라도 관찰사로 직급이 강등되었다.<sup>16)</sup>

51세(중종 38년)에는 그의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스스로 광주 목사가 되었고, 52세(중종 39년) 12월에 광주 관사에서 그의 어머니께서 세상을 떠나셨다. 송순은 깊은 슬픔에 빠져 잠시도 묘소를 떠나지 않으며 3년간의 시묘 생활을 하였다. 그렇게 힘겨운 시묘 생활을 마친 55세

13) 주보, 「宋純 漢詩의 表現的 特徵과 主題 研究」, 가천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pp.15~16.

14) 위의 논문, pp.16~17.

15) 위의 논문, p.17.

16) 위의 논문, p.17.

(명종 2년)에는 동지중추부사가 되어 『중종실록』을 집필했으며, 그해 5월에 주문사의 신분으로 북경에 다녀왔고, 그로 인해 개성부유수가 되었다. 58세(명종 5년)에는 대사헌과 이조참판이 되었다. 그 시기에 ‘안불망위’라는 시를 지었는데 그 시로 일등을 하고, 상으로 말 한 마리를 받았다.<sup>17)</sup>

그러나 그는 허자(許磁)에게 어진 선비를 등용할 것을 제안하다가 진복창(陳福昌)과 이기(李芾) 등에게 모함받아 충청도 서천으로 귀양을 가게 되었다. 그러나 다행히 바로 다음 해에 바로 풀려났다. 60세(명종 7년)에는 평안도 순천에서 선산 도호부사가 되었고, 담양에 있는 면양정을 증축하였다. 이때 조선 중기의 성리학자인 기대승이 ‘면양정기’를 썼으며 임제(林悌)는 「부」를 지었다. 또한 김인후(金麟厚)·임억령(林億齡)·박순(朴淳)·고경명(高敬命) 등이 시를 지어 그들의 시에 대한 화답을 보냈다.

그 뒤로 66세(명종 13년)에 전주부윤에 재직했고, 68세(명종 15년)에 신병으로 인해 사직서를 쓰고 고향에 돌아왔다. 바로 다음 해인 69세(명종 16년)에는 나주목사가 되었다. 70세(명종 17년)에는 관직에서 물러난 문신들에게 예의를 지키고자 설치된 기로소라는 관청에 들어갔다.<sup>18)</sup>

76세(선조 1년)에는 한성부판윤이 되어서 『명종실록』을 집필하였다. 77세에 한성판윤으로 갔다가 다시 의정부 우참찬 겸 춘추관사로 자리를 옮겼다. 송순은 병으로 인해 선조에게 해직시켜 달라고 간절하게 부탁했으나 선조가 이를 허락하지 않아 결국 지중추부사가 될 것을 명하였다. 그러나 그는 끝내 관직을 받지 않았고, 고향으로 돌아와 이후 약 14년을 향리에 묻혀 생활하면서 여생을 즐겁게 보냈다. 송순은 그의 고향인 전라도 담양에서 석림정사와 면양정을 지었고, 1582년 2월 2일(선조 15년) 90세가 되던 송순은 그해 2월 초하룻날에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sup>19)</sup>

#### 《 참고문헌 》

- 김학성, 「송순(宋純) 시조(時調)의 미적(美的) 성취(成就)와 그 가치(價値) : 시조집(時調集)」, 『반교어문학회』 제25호, 2008, pp.119~147.
- 주뇌, 「송순(宋純) 한시(漢詩)의 표현적(表現的) 특징(特徵)과 주제(主題) 연구(研究)」, 가천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

17) 위의 논문. p.17.

18) 위의 논문. p.18.

19) 위의 논문. p.18.

## 면앙정가

- 송순의 작품 면앙정가 소개 -

인문학부 20231066 이경준

작품의 제목이 되는 ‘면앙정가’(俛仰亭歌)의 산실인 면앙정은 송순이 기묘사화(중종 14년, 1519) 이후 낙향하여 지은 초정에서 비롯된다. 그는 이곳에서 5여 년을 보낸 후 다시 벼슬길에 오르게 되었는데 이후 거의 관리하지 못하게 되어 60세 무렵에야 담당 부서였던 오검(吳謙)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모습을 가꾸게 되었다. 현재 정면 3칸, 측면 2칸의 규모로, 정자 한 가운데 한 칸짜리 방이 있고, 사방으로 마루가 깔려 있어 어느 쪽에서나 주변의 경치를 감상할 수 있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sup>20)</sup>

송순의 ‘면앙정가’는 정극인의 ‘상춘곡’에서 비롯된 자연 친화적인 세계의 뒤를 이어, 자연의 흥취를 즐기는 정서(풍류)가 문학적 표현의 뒷받침으로 근거하여 서정 가사의 전범(典範)을 이루어 후대의 작품들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는 평을 받고 있다. 또한 정철의 가사(성산별곡) 등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sup>21)</sup>

‘면앙정가’의 경우 표현적 측면에서 한자어의 적절한 사용이 오히려 묘사의 묘(妙)를 더한다는 점, 우리말 구사가 잘 두드러진다는 점, 그리고 묘사의 현실성과 역동성이 뛰어나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면앙정가’를 완성된 강호 가사의 시초로 보아도 무방하다고 생각된다. 다시 말해 이러한 완결성은 이후 제작된 가사 작품들의 미적 완성도를 심화시켜주는 계기가 되었고, 그런 의미에서 강호 가사의 진정한 효시 작품이라 여겨도 무방할 것이다.<sup>22)</sup>

일반적으로 ‘면앙정가’는 송순이 41세 때 전남 담양 봉산의 제월봉 아래에 면앙정이란 정자를 짓고, 자신의 은일을 노래한 것으로 자연에서 얻어진 흥취를 사계절의 변화에 따라 읊고 있는 작품이라고 알려져 있다. 면앙정의 지세(地勢)로부터 시작하여 제월봉의 형세, 면앙정의 경치, 사계절의 경치 그리고 자신의 열린 마음에서 임금에 대한 한 줄기 연모의 정까지 앞뒤의 내용을 유기적으로 체계를 갖추어 묘사한 선경후정(先景後情)을 내용으로 삼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서사의 내용부터 확인해보자면 여기에서는 구체적으로 면앙정이 있는 제월봉의 형세와 면앙정의 모습을 다양한 은유적 표현으로 형상화한 것이 드러난다.<sup>23)</sup>

20) 조태성, 「俛과 仰, 두 개의 시선 - <면앙정가(俛仰亭歌)>의 감성적 독해」, 『한국시가문화연구』, 2012, pp.2~3.

21) 위의 논문, p.8

22) 위의 논문, p.9

23) 위의 논문, p.14

无等山(무등산) 한 활기 뒤흠 동다히로 버더 이셔  
 멀리 제쳐 와 霽月峯(제월봉)이 되어거늘  
 無邊大野(무변 대야)의 모습 짐작 호노라  
 일곱 굽이 흠뻑 움쳐  
 므득므득 버렸는 듯  
 가운데 굽이논 굽이 든 늘근 놓이  
 선잠을 갓 씨야 머리를 안쳐시니  
 너르바희 우희  
 松竹(송죽)을 헤치고 亭子(정자)를 언쳐시니  
 구름 탄 靑鶴(청학)이千里(천 리)를 가리라  
 두 날개 버렸는 듯

무등산 한 줄기 산이 동쪽으로 뻗어 있어  
 멀리 떼어 버리고 나와 제월봉이 되었거늘  
 끝없는 너른 들판에서 무슨 생각하느라고  
 일곱 굽이가 함께 뭉쳐서  
 우뚝우뚝 벌여 놓은듯하네  
 가운데 굽이는 구멍에 든 늪은 용이  
 선잠을 갓 깨어 머리를 얹어 놓은 듯하니,  
 너럭바위 위에  
 소나무 대나무를 헤치고 정자를 앉혔으니,  
 구름 탄 푸른 학이 천 리를 가려고  
 두 날개를 벌리고 있는 듯하네

위 내용에서는 무등산의 한 지맥이 동쪽으로 뻗어 와서 제월봉이 되었고, 다시 그 지맥은 서북쪽으로 향하여 조금 비스듬히 내려오다가 일곱 굽이 중 가운데 굽이가 솟아오른 그 형세가 마치 용이 머리를 얹혀놓은 것 같은데, 바로 그 위에 세 칸으로 앞이 탁 트이게 정자를 지어 면양정이 있는 곳의 위치와 모습을 형상화해볼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면양정가’는 ‘무등곡(無等曲)’이라는 별칭으로도 불린다. 작품의 내용이 그만큼 무등산과도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의미이다. 작품의 내용에서 보면, 먼저 정자가 있는 제월봉을 설명할 때, 멀리 무등산으로부터 그 줄기가 시작되었다고 말한다.<sup>24)</sup> 무등산의 여러 줄기를 타고 건너와 제월봉이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이 부분에서 말하는 ‘구름을 탄 푸른 학’, 즉 청학(靑鶴)은 하늘과 땅을 관통하여 호연한 흥취를 취하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면 좋을 것 같다. 비록 청학이 면양정을 비유(면양정이 푸른 지붕인 것도 유추해 볼 수 있음)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을 짓고 경영하는 이는 바로 작자인 송순 자신이기 때문이다.<sup>25)</sup>

玉泉山(옥천산) 龍泉山(용천산) 느린 물히  
 亭子(정자) 앞 너른 들히 울울히 펴진 드시  
 넓거든 기노라 프르거든 희디마나  
 雙龍(쌍룡)이 뒤트는 듯 긴 깃을 치פת는 듯  
 어드러로 가노라 모습 일 비얏바  
 듯는 듯 짜르느 듯 밤낮으로 흐르느 듯  
 므조친 沙汀(사정)은 눈긏치 펴졌거든  
 어지러운 기러기논 므스겨슬 어르노라  
 안즈락 누리락 모드락 흐트락  
 蘆花(노화)를 수이 두고 우려곰 쫓니느뇨

옥천산, 용천산에서 내린 물이  
 정자 앞 넓은 들에 끊임없이 펼쳐진 듯이  
 넓거든 길지 말거나 푸르거든 희디 말거나,  
 쌍룡이 뒤트는 듯, 긴 비단을 활짝 펼친 듯,  
 어디로 가느라 무슨 일이 바빠서  
 달리는 듯 따라가는 듯 밤낮으로 흐르는 듯하네,  
 물 따라간 바닷가 모래밭은 눈처럼 펼쳐져 있는데,  
 어지럽게 나는 기러기는 무슨 정을 통하느라  
 앉았다가 내렸다가 모였다가 흩어졌다  
 갈대꽃을 사이에 두고 울면서 따르느뇨

본사에 해당하는 이 부분에서 작자는 너른 들판 너머에서부터 시작되는 두 산에서 흘러나오는 물결을 다양한 비유를 통하여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물길을 따라 펼쳐져 있는 모래밭과 그 위를 어지럽게 나는 기러기까지 묘사한다. 따라서 이 부분의 주요 제재는 물길과 모래밭, 그리고 기러기라고 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작자의 주된 관심은 물길이며, 부차적 관심은 모래밭이라고 할 수 있다.<sup>26)</sup>

24) 위의 논문, p.15.

25) 위의 논문, p.15.

26) 위의 논문, p.16.

그러나 남은 제재인 ‘기러기만은’ 이 부분에서 색다른 역할을 한다. 원래 고정된 물길이나 모래밭이 시선의 움직임에 따라 활동적인 이미지로 전환되는 것과는 반대로 기러기는 그 자체의 활동적인 움직임으로 다시 작자의 시선을 움직이게 하고 있다. 작품에 나타난 ‘어지러운’, ‘앉았다가 내렸다가 모였다가 흩어졌다가’ 등의 시어들이 이런 시선의 움직임을 포착하게 해 주는 것이며, 다음으로 이어지는 시선의 변화를 암시해 주고 있다. 즉, 기러기는 작자의 시선이 옮겨 갈 수 있도록 매개해 주는 일종의 시적 장치이자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제 기러기를 쫓아 옮겨 간 작자의 시선은 위로 향한다.<sup>27)</sup>

너븐 길 밧기오 긴 하늘 아꺾이  
두르고 쓰준 거슨  
뫼힌가 屏風(병풍)인가 그림가 아닌가

넓은 길 밖이요, 긴 하늘 아래  
두르고 꽃은 것은  
산인가 병풍인가 그림인가 아닌가.

노픈 듯 녹은 듯 근눈 듯 닳은 듯  
숨거니 뵈거니 가거니 머물거니  
어즈러운 가운데 | 일흠 눈 양향야  
하늘도 젓티 아녀  
웃독이 섯는 거시 秋月山(추월산) 머리 짓고  
龍龜山(용구산) 夢仙山(몽선산)  
佛臺山(불대산) 魚登山(어등산)  
湧珍山(용진산) 錦城山(금성산)이  
虛空(허공)에 버러거든  
遠近蒼崖(원근 창애)의  
머문 것도 하도 할사

높은 듯 낮은 듯 끊어지는 듯 이어지는 듯  
숨거니 보이거니 가거니 머물거니  
어지러운 가운데 이름이 난 것처럼  
하늘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뚝 서 있는 것이 추월산 머리를 만들고  
용구산, 몽선산,  
불대산, 어등산,  
용진산, 금성산이  
허공에 늘어서 있으니,  
멀고 가까운 푸른 절벽에  
머문 것도 많기도 많구나

작자의 시선은 이제 ‘밖’과 ‘하늘’, 그리고 하늘도 두렵지 않다는 듯 우뚝 서 있는 ‘산’으로 옮겨간다. 우러러보기의 시작이다. 그러나 저마다 우뚝우뚝 서 있는 산봉우리들이 작자에게 어떤 경외감을 주지는 않는다. 그보다는 일종의 인식처로 받아들여진다. 도리어 그것들이 있어서 오히려 중간에 있는 자신과 면양정이 마치 포근히 둘러싸여 안긴 듯한 편안함으로 다가 온다는 것이다. 또한 ‘앉았다가 내렸다가 모였다가 흩어졌다가’, ‘높은 듯 낮은 듯 끊이는 듯 잇는 듯’ 등의 이러한 시어들은 이 작품에 역동성을 부여하는 장치가 된다. 고정된 듯 보이는 시선이지만 그 안에서의 부지런히 움직이는 작은 시선들을 포착하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생동감을 안겨주고 있다.<sup>28)</sup>

27) 위의 논문, p.16.

28) 위의 논문, p.17.

흰구름 브흰 煙霞(연하)흰 구름,  
 푸르니는 山嵐(산람)이라  
 千巖萬壑(천암 만학)을  
 제 집으로 사마 두고  
 나명성 들명성 일히도 구는지고  
 오르거니 누리거니  
 長空(장공)의 떠나거니  
 廣野(광야)로 건너거니  
 프르락 블그락 여트락 지트락  
 斜陽(사양)과 섯거 디어 細雨(세우)조차 뿌리논다  
 籃輿(남여)를 비야 툃고  
 술 아러 | 구븐 길노 오며 가며 흐는 적의  
 綠楊(녹양)의 우는 黃鶯(황앵)  
 嬌態(교태) 겨워 흐는고야  
 나모 새 즈자지어  
 樹陰(수음)이 얼린 적의  
 百尺欄干(백 척 난간)의 긴 조으름 내여 퍼니  
 水面涼風(수면 양풍)이야  
 그칠 줄 모르는가  
 즈 서리 빠딘 후의 산 빗치 錦繡(금수)로다  
 黃雲(황운)은  
 쏘 엇디 萬頃(만경)의 퍼겨 디요  
 漁笛(어적)도 흥을 계워 들롤 썩와 브닌는다  
 草木(초목) 다 진 후의 江山(강산)이 미물커늘  
 造物(조물)리 현스 허야  
 氷雪(빙설)로 꾸며 내니  
 瓊宮瑤臺(경궁 요대)와 玉海銀山(옥해 은산)이  
 眼低(안저)의 버러세라

뿌연 안개와 노을,  
 푸른 것은 산 아지랑이로다.  
 수많은 바위와 골짜기를  
 제 집으로 삼아 두고  
 나며 들며 아양을 떠는구나.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며  
 먼 하늘로 떠나기도 하고  
 넓은 들판으로 건너가기도 하며  
 푸르기도 붉기도 열기도 질기도 하며  
 석양과 섞여 가느다란 비조차 뿌리는구나  
 가마를 재촉하여 타고소나무 아래 굽은 길로 오  
 며 가며 하는 때에  
 푸른 버드나무에 우는 노란 피꼬리는  
 아양을 떠는구나  
 나무 사이가 촘촘하여  
 짙은 그늘이 우거져 있는 곳에  
 긴 난간에서 긴 줄음을 조니,  
 물 위에서 부는 시원한 바람은  
 그칠 줄을 모르는가  
 된서리 내린 후에 산 빛이 수놓은 비단 같도다.  
 누렇게 익은 곡식은  
 또 어찌 넓은 들판에 펼쳐져 있는가?  
 어부의 피리도 흥에 겨워 달을 따라 부는구나.  
 초목이 다 떨어진 후에 강산이 묻혔거늘  
 조물주가 야단스러워  
 얼음과 눈으로 꾸며내니  
 곱디고운 집과 누대, 새하얀 들과 산들이  
 눈 아래 펼쳐져 있구나.

위는 본사에서 사계의 순서대로 펼쳐지는 면양정 주변의 뛰어난 경치에 대해 묘사하고 있  
 다. 주체는 각각 봄에서는 구름, 안개와 노을, 아지랑이 여름에서는 피꼬리 가을에서는 어적  
 등이 있다. 여기에서 작자는 ‘아지랑이 - 녹음 - 된서리 - 빙설’이라는 계절감이 드러나는 언  
 어를 사용하여 사계의 승경을 표현한다. 또한 ‘석양 - 줄음 - 달’ 등의 시어를 사용하여 ‘밤  
 낮’이라는 시간적 대비 구조를 완성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대비 구조는 앞서 수직적 공간 구  
 조에서의 역동성이 시선의 움직임에 의해 확보된 것처럼, 시간의 순환적 구조를 보여줌으로써  
 또 다른 역동성을 갖추게 하는 장치가 되는 것이다.<sup>29)</sup>

29) 위의 논문, pp.18~19.

乾坤(건곤)도 가옴열사  
 간 디마다 경이로다  
 人間(인간)을 떠나와도 내 몸이 겨를 업다  
 니것도 보려 하고 저것도 드르려코  
 북돋도 혀려 하고 돌도 마즈려코  
 봄으란 언제 줍고 고기란 언제 낙고  
 柴扉(시비)란 뉘 다드며  
 딴 곳츠란 뉘 쏘려뇨  
 아츰이 낫브거니 나조히라 슬흘소냐  
 오늘리 不足(부족)커니  
 來日(내일)리라 有餘(유여)하라  
 이 뉘히 안자 보고 저 뉘히 거러 보니  
 煩勞(번로)흔 모름의 부릴 일이 아조 업다  
 설 사이 업거든 길히나 전하리야  
 다만 淸藜杖(청려장)이  
 다 므디어 가노미라  
 술리 닉엇거니 벗지라 업슬소냐  
 불리며 특이며 혀이며 이아며  
 온가짓 소리로 醉興(취흥)을 비야거니  
 근심이라 이시며 시름이라 브터시라  
 누으락 안즈락 구부락 저츠락  
 을프락 푸람하락 노혜로 소그니  
 天地(천지)도 넓고넓고 日月(일월)도 훈가하다  
 羲皇(희황)을 모를러니 이적이야 괴로고야  
 神仙(신선)이 엇더턴지 이 몸이야 괴로고야  
 江山風月(강산 풍월) 거늘리고  
 내 百年(백 년)을 다 누리면  
 岳陽樓上(악양루상)의 李太白(이태백)이 사라 오다  
 浩蕩情懷(호탕 정회)야 이에서 더할소냐  
 이 몸이 이렇 굶도  
 亦君恩(역군은)이샀다

하늘과 땅도 풍성하구나.  
 가는 곳마다 아름다운 경치로다.  
 인간 세상을 떠나와도 내 몸이 겨를이 없다.  
 이것도 보려하고 저것도 들으려 하고  
 바람도 쐬려하고 달도 맞으려 하니,  
 밤은 언제 줍고 고기는 언제 낙고  
 사립문은 누가 닫으며  
 떨어진 꽃은 누가 쓸 것인가?  
 아침이 부족하니 저녁이라고 싫겠느냐  
 오늘도 부족한데  
 내일이라 여유가 있겠는가  
 이 산에 앉아 보고 저 산을 걸어 보니  
 번거로운 마음에 버릴 일이 아주 없다.  
 설 사이가 없는데 길이나 전하겠는가?  
 다만 하나의 푸른 명아주 지팡이만이  
 다 무디어 가는 구나.  
 술이 익엇거니 벗이야 없을 것이냐  
 부르게 하며 타게 하며 켜게 하며 흔들며  
 온갖 소리로 술에 취한 흥을 재촉하니  
 근심이라 있으며 시름이라 붙겠는가  
 누웠다가 앉았다가 굽혔다가 젖혔다가  
 울었다가 휘파람을 불었다가 마음껏 놀거니.  
 천지도 넓고 넓으며 세월도 한가하다.  
 복희 황제를 몰랐는데 지금이야 그것이로구나.  
 신선이 어떻든지 이 몸이야말로 그것이로구나.  
 자연을 거느리고  
 내 한 평생을 다누리면  
 악양루 위의 이태백이 살아 온다고 한들  
 호탕한 마음이야 이보다 더할 것이냐  
 이 몸이 이렇게 지내는 것도  
 역시 임금님의 은혜이도다.

- 송순, '면양정가'

마지막으로 결사 부분에서 주목할 점은, 밤낮 가릴 것 없고 오늘 내일 없이 자연에서의 즐거움이 무한하여 화자에게는 심리적 위안과 풍류 지향적 태도를 지닌 화자의 삶의 목표를 일깨워주고 자신의 현재 생활에 대한 만족감을 대구법과 설의법 등을 통해 더욱 강조해주며 마지막 행에서는 임금에 대한 군은(君恩)의 자세를 갖추어 유교적인 충의가 드러난다.

#### 《참고문헌》

- 김신중 외, 『누정 - 담양의 누정기행』, 담양문화원, 2008.  
 김신중·박영주 외, 『가사 - 담양의 가사기행』, 담양문화원, 2009, pp.59~78  
 조태성, 「면과 仰, 두 개의 시선 -<면양정가(면仰亭歌)>의 감성적 독해」, 『한국시가문화연구』 제29호, 한국고시가문학회, 2012, pp.335~357.

## 호남시단의 맹주 송순

- 면양정의 문학사적 의의

국어국문학전공 20191020 김성중

우리 문학사에서 국문시가의 전성기는 16세기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전성기를 주도한 주체는 바로 호남 시단이라고 할 수 있다. 16세기 호남 시단은 담양 부사를 지낸 놀재 박상(1474~1530)과 능성 현감을 지낸 취은 송세림(1479~?)을 태두로 삼는다. 이들에게서 면양정 송순(1493~1583)과 석천 임억령(1496~1568)이 배출되었고, 하서 김인후(1510~1560), 송천 양응정(1519~1581), 사암 박순(1523~1589), 서하 김성원(1525~1597), 고봉 기대승(1527~1572) 등이 이들 면양정과 석천의 문하에서 수학하거나 긴밀한 교유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리고 다시 송강 정철(1536~1593)을 위시하여 제봉 고경명(1533~1592), 구봉 송익필(1534~1599), 옥봉 백광훈(1537~1582), 고죽 최경창(1539~1583), 백호 임제(1549~1587) 등이 면양정으로부터 고봉에 이르는 인물들과 사제 간을 이루거나 선후배 문인으로서 절친하게 교유하고 있었다.<sup>30)</sup> 특히 호남 사림의 문학 활동은 당시 조선 사대부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한시보다는 시조·가사를 위시한 시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른바 ‘호남가단(湖南歌壇)’이라는 별칭까지 얻었을 정도다.<sup>31)</sup>

면양정 송순(俛仰亭 宋純·1493~1583)은 이러한 호남 시단의 핵심 인물이다. 그는 당대 이름 있는 사대부 지식인들이 그랬듯, 학자면서 정치가였고 문인이었다. 특히 그의 문학은 600여 수에 이르는 한시문, 30여 수의 시조, 강호가사의 백미인 ‘면양정가’ 등 우리 문학사에 주옥같은 명편들을 남겼다.<sup>32)</sup> 기대승·임제·임억령·김인후·고경명·박순·정철 등등 당시 전국적으로 알려진 문인들이 면양정에서 지은 시문은 다수가 있다. 특히, 송순은 자신의 누정 주변의 승경을 ‘면양정가(俛仰亭歌)’라는 가사 작품에 담았고, 임억령·김인후·고경명·박순 등은 연작시 형태인 ‘면양정 30영’을 남겼다.<sup>33)</sup>

면양정을 위시한 조선조 사대부들은 ‘자연’에 유별난 관심을 기울였다. 자연에 대한 정서와 미감은 물론, 이를 매개로 한 생활이념과 가치 의식을 문학작품으로 형상화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향리에 묻혀 지내는 경우 더욱 두드러졌지만, 벼슬길에 있을 때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연에 대한 감정을 다양하게 꽃피웠다.<sup>34)</sup> 특히 시조와 가사로 대표되는 조선조 시가 문학에 불어닥친 자연 예찬의 풍조는 이른바 강호가도(江湖歌道)라는 문학사조를 이룰 만큼 풍부한 바가 있다. 조선조 사대부들은 인정이나 세태보다는 자연에 대한 진지하고도 심원한 사유 및 정서를 기반으로 그들 특유의 미의식과 가치 의식을 다채롭게 형상화한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의 삶은 자연과의 관련을 통해 모색되면서 더욱 풍성해졌으며, 그래서인지 자연을 예찬하는 시풍이 시대를 풍미했다.<sup>35)</sup> 다시 말해 ‘면양정가’가 지닌 작품론적 특성은 이후 제작된 강호가도 작품들의 지표가 되어, 사대부적 자연 인식과 가치 지향의식 - 그 미적

30) 박영주, 「가사 작가 인물전\_호남 시단의 맹주, 면양정 송순」, 『오늘의 가사문학』 제2호, 고요아침, 2014, pp.61~62.

31) 위의 논문, p.62.

32) 위의 논문, p.63.

33) 박명희, 「무등산권(無等山圈) 누정문학의 문화지도」, 『국학연구논총』 16권, 태민국학연구회, 2015, p.24.

34) 박영주, 앞의 논문, pp.68~69.

35) 위의 논문, p.69.

정서적 형상을 언어화하고 심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시가사적 의의와 위상을 부여할 수 있다.<sup>36)</sup>

#### 《참고문헌》

- 고성혜, 「송순의 <면앙정가>에 나타난 장소성과 그 의미」, 『韓民族語文學』 제70집, 한민족어문학회, 2015, pp.299~326.
- 김신중, 「면앙정 송순 연구 전국학술대회 특집호 : 송순(宋純) 시조(時調)의 전승 양상과 문학사적 의미」, 『한국시가문화연구』 제4집, 한국시가문학회, 1997, pp.25~40.
- 박명희, 「무등산권(無等山圈) 누정문학의 문화지도」, 『국학연구론총』 16권, 태민국학연구회, 2015, pp.1~38.
- 박영주, 「가사 작가 인물전\_호남 시단의 맹주, 면앙정 송순」, 『오늘의 가사문학』 제2호. 고요아침, 2014, .61~70.
- 장선희, 「문집(文集)과 누정(樓亭)을 중심으로 고찰한 담양(潭陽) 시단(詩壇)과 송순(宋純)의 역할」, 『한국시가문화연구』 제33집, 한국고시가문학회, 2014, pp.319~344.
- 전일환, 「한국문학사상 송강가사의 위상」, 『한국언어문학』 제55집, 한국언어문학회, 2005, pp.275~292.

---

36) 위의 논문, p.70.

## 면앙정, 자연의 풍류

-자연의 소리를 듣다

국어국문학전공 20231087 정지우

송순 작가와 관련된 면앙정(倂仰亭)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면앙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봐야 한다. 송순 작가는 삶을 ‘관용’의 품성을 가지고 살아온 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 본래 면앙(倂仰)이라고 함은 아래를 굽어보고 위를 올려다본다는 뜻을 지닌다. 그는 달관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온 작가임을 그의 문학작품에서 알 수 있다. 송순의 문학작품 연구와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면앙정을 중심으로 수많은 문학작품이 나왔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고찰해야 할 것이다. 누정은 조선시대 지식인의 생활 공간이 되었으며, 이는 조선조뿐 아니라 우리 역사 속에서 사대부의 생활 터전이며 풍류와 교유관계를 즐길 수 있었던 유일한 삶의 공간이기도 하여 자연 속에 자리를 잡는 누정들은 그곳에 기대어 살아가던 사람들의 숨결을 간직하고 있다.<sup>37)</sup> 면앙정은 수려한 경관을 가지고 있는 장소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인지 단순한 휴식 공간으로 다루어지는 것이 아닌 많은 지식인이 모여 작품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장소가 되었다. 면앙정은 자연을 벗으로 삼은 생활상을 문학작품에 녹여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면앙정을 창작한 뒤 지은 「면앙정(倂仰亭)」이라는 한시가 또 하나 있다.

百里群山擁野平  
臨溪第屋幸初成  
此身不繫蒼生望  
宜與沙鷗結好盟

백리의 여러 산이 에운 들녘 평평한데  
시냇가에 초가집이 다행히 이루어졌다  
이 몸이 창생(蒼生)의 바램과는 상관 없으니  
모래발 갈매기와 맹세나 맺자

- 「면앙정(倂仰亭)」

이 시는 중종 28년 송순의 나이 41세에 사간원에서 파직되어 고향으로 내려와 면앙정을 창건한 후 지은 작품이라고 밝혀져 있다. 이 작품은 산이 병풍처럼 둘러 있고 산 앞에 펼쳐져 있는 넓은 들의 정경을 그리면서 초가로 지어진 면앙정 밑으로 흐르는 시내를 묘사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작품을 보면 송순은 자연을 바라보며 속세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송순은 지금 창생의 다스림에서 물러나 있는 상황으로 모래발의 갈매기와 함께하고자 하는 심정을 읊고 있다. 최한선은 이 시의 초두에서 정자의 승경을, 말미에서 벼슬에서 물러나 갈매기와 짝을 이루고 있는 자신의 처지와 물아일체의 경지를 노래하고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송순은 다시 정치권에 나아가거나 백성들을 걱정하는 마음도 있고 싶은 심정을 읊은 것이라 했다. 이 시를 창작했을 당시 송순은 한참 정계에서 일할 나이였다.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관직에서 밀려난 상황에서 「면앙정」 시를 창작했다. 현실적 갈등을 안은 채 갈매기를 벗 삼아 살겠노라는 의지로 시상을 붙잡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먼저 몸과 마음을 닦음으로써 송순의 삶의 신조인 면앙(倂仰)을 더욱 굳건하게 다짐하는 심정을 읽을 수 있다. 이로써 송순이 추구하고자 했던 삶을 조금이라도 유추할 수 있었다. 또, 면앙정 주변 경관은 백 리나 두른 산봉우리들이 넓은 들판을 에워싸고 있어 신선이 된 듯한 기분으로 감흥을 느낄 수 있는 아름다운 자연환경이다.<sup>38)</sup>

37) 최인자, 「면앙정(倂仰亭) 송순의 한시 연구」, 『송순의 한시 세계』, 가천대학교 일반대학원, 2023, p.24.

송순은 자신의 문학 생활을 자연인 면양정을 기준 삼아 빗대어 표현하곤 했다. 강호 한정의 풍류를 즐기는 송순은 속세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아온 작가라고 볼 수 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근심을 다 버려버리고 폭포처럼 생동감 있는 삶을 살고자 하는 포부를 말하거나, 산사의 풍경을 그림 그리듯이 묘사하거나, 면양정에서 느끼는 편안함과 기쁨을 표현하는 등 자신이 느끼는 그대로를 묘사함을 알 수 있다.

#### 《참고문헌》

최인자, 「면양정(俛仰亭) 송순의 한시 연구」, 가천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3, pp.1~85.

---

38) 위의 논문, pp.28~29.

## 고산 윤선도의 생애와 문학사적 특징

-고산 윤선도의 작품 속 문학사적 특징

국어국문학전공 20231046 설세현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문인으로 평가되는 고산(孤山) 윤선도(尹善道)는 14세의 어린 나이부터 시작하여 83세까지 활동을 계속하려 70년이란 많은 기간 동안 활동해왔다. 고산 윤선도는 해남 윤씨로 1572년 서울에서 태어났으며 몸집이 왜소하고 연약한 사대부 집안의 도령이었으나 단정하고 엄숙한 몸가짐을 하며 항상 선비 정신을 갖고 있었다. 스물여섯의 나이로 진사시에 급제하였으나 광해군을 둘러싸며 나라를 어지럽히던 판국이었기 때문에, 이 일로 함경도 경원으로 귀양을 가게 된다. 그때 나이 30이었다. 고산은 유배지에서도 나랏일에 대해 걱정하고 아버지를 그리는 심정을 풀어 넣은 견회요<遣懷謠>, 우후요<雨後謠>를 지었다. 33세에 경남에서 귀양을 살다 37세에 인조가 즉위하여 8년 만에 정계로 복귀하지만, 반대파의 모함으로 49세에 고향으로 물러났다.<sup>39)</sup>

그후 병자호란이 일어나면서 임금이 오랑캐에게 굴복했다는 소식을 들은 고산은 속세를 벗어나 보길도에서 지나던 중 임금의 부름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평안도 영덕에서 2년간 귀양을 하다가<sup>40)</sup> 81세에 8년간의 귀양을 끝내고 부용동으로 돌아와 여생을 지냈다.

그가 활동하는 긴 기간 동안 고산 윤선도의 인식과 태도는 그가 남긴 많은 작품과 문헌을 통해 찾을 수 있었다.

고산이 효종의 사부로 왔을 때 그의 시론을 밝힌 글이 있는데 고산의 문학관을 보여준다. 그가 생각하던 문학은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여, 문학을 통해서 지식을 획득하며 획득한 지식을 실천하면 이로움을 가지게 되는 교육적인 것을 문학이라고 한다. 또한 선은 권하고 악은 견제하는 교훈적인 내용을 강조하며 ‘충성심’, ‘우애’ 등 조선시대에서 중요한 유교적 덕목을 중요시함을 알 수 있었다.<sup>41)</sup>

고산을 비롯한 대부분의 사대부들이 한자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은 많이 알고 있는 사실이다. 하지만 고산은 다른 사대부들과는 다르게 국문 시조를 작필하며 그가 국문 문학을 아끼며 우리말을 갈고 닦은 것을 알 수 있다. 국문학자인 김사엽은 고산으로 인해 우리말의 아름다움이 더욱 깊어졌으며, 대부분이 한자어를 사용하며 우리말을 천시하던 당시에 지어 더욱 의미 있다고 말하였다. 고산 윤선도의 작품인 『만흥』에선 그가 우리말을 주로 사용하던 일반 백성과 이웃들과는 전혀 다른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일반백성들이 주로 먹는 음식을 소재로 하여 우리말을 사용해 시조를 지은 것에서 소박하고 검소한 소재를 중심으로 순수한 우리말로 잘 표현하여 유연하게 임한다는 점에서 우리말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뒷받침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산이 국문 시조보다는 한시를 많이 남겼지만, 사대부였던 고산이 국문 시가를 남겼다는 자체만으로도 우리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깊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p>42)</sup>

39) 이상실, 윤선도 - 政界복귀 꿈꾸며 자연을 노래한 유배시인, 세계평화교수협의회, 1986, pp.181~183.

40) 이종범, 孤山 尹善道의 出處觀과 政論, 대구사학회, 2004, pp.29~33.

41) 김자연, 「고산 윤선도 문학의 특징」,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2002』, pp.13~14.

42) 위의 논문, pp.18~19.

고산문학에는 천성에 따라 자연을 숭상하고, 외물의 침해를 받지 않는 무위를 주장하며 자연의 품안을 찾는 은거 사상이 짙은 도교적 요소가 들어가 있는데 당시 조선에서는 공식적으로는 배척의 대상이었으나 일관적이게 배척하지는 않았다 조선조 유가들 대부분은 유교를 지향하면서 속세적인 것을 떠나 탈속적인 삶과 환상적인 삶을 갈구 하고 있었으며 고산 또한 탈속적이며 환상적인 삶을 그리워했다. 이와 같은 이유에선지 그의 작품속에도 도교적 요소가 들어가 있다.<sup>43)</sup>

躺室을 바라보니 白雲이 둘러 있다  
빈 붓터라 뷔 붓터라  
부들부채 7ㄹ 쥐고 石經으로 올라 가자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  
漁翁이 閑暇터나 이거시 구실이라

작은 집을 바라보니 흰 구름이 둘러있구나.  
배 붙여라 배 붙여라  
부들 부채를 가로 쥐고, 돌길로 올라가자.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  
늙은 어부가 한가하더냐? 이것이 구실이로다.

<어부사시사, 여름10><sup>44)</sup>

위 글인 <어부사시사>는 1651년 보길도에서 고산이 은거생활을 하며 지은 시조이다. 당시 고산은 제주도로 향하는 길에 우연히 보길도라는 섬을 보게되고 빼어난 경치에 반하여 보길도에서 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늙은 나이에 발견한 보길도는 고산에게 세속에서의 초탈을 실현하고 싶었던 장소였을지도 모른다. 고산에게 보길도는 선계이며 본인은 신선이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sup>45)</sup>

고산은 남들과 다른 문학에 대한 철학이 있었으며 이는 지금까지도 많은 연구에 도움이 되고 있다.<sup>46)</sup>

### 《참고문헌》

김학선, 「윤선도尹善道」,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42393>

김학성, 「어부사시사」,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35984>

김자연, 「고산 윤선도 문학의 특징」,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2002, pp.1~124.

이상실, 「윤선도 - 政界복귀 꿈꾸며 자연을 노래한 유배시인」, 『광장』, 세계평화교수협의회, 1986, pp.181~187.

43) 위의 논문. p.36.

44) <어부사시사>.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45) 위의 논문. p.37.

46) 전통문화포털(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정보원), 윤선도 표준영정.

## 세속을 떠나 부르던 노래

-<어부사시사> 작품소개

국어국문학전공 20231073 이지오

‘어부사시사[漁父四時詞]’는 윤선도가 지은 시조 작품 중 하나이다. 1651년 윤선도 나이 65세 때 완도 보길동 부용동을 배경으로, 작품의 제목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어부의 생활을 4계절인 춘사, 하사, 추사, 동사로 나눠 각 10수씩, 총 40수를 노래한 연시조이다.<sup>47)</sup> 어부사시사는 총 40수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시의 순환, 반복 구조, 동형 반복의 여음구, 종장의 율격 구조 등을 근거로 완벽한 유기적 시형으로 평가받고 있다.<sup>48)</sup> 작품의 구성은 하루의 일과를 축약하여 포구에서 아침에 배를 띄우고 저녁에 돌아오기까지의 과정을 담아내고 있다. 어부사시사는 기존의 어부사 계열의 작품들의 내용과 표현 등을 취해서 윤선도의 경험을 토대로 재구성한 작품이다. 어부사시사가 여타 다른 시조들과 다른 점은 전래해 오던 어부사에 포함된 후렴구를 전체 40수의 작품에 그대로 수용하여 다뤘다는 점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평시조의 형식과는 구별되며, 평시조의 초, 중장 사이에 각각 후렴이 첨가되어 있다.

옷 우희 서리오디 치운 줄을 모랄로다  
달디여라 달디여라  
釣도船선이 좁다 하나 浮부說세과 언더하니  
至지窻국窓총 至지窻국窓총 於어思스臥와  
내일도 이리 하고 모뢰도 이리 하자

옷 위에 서리 온 추운 줄을 모랄로다  
닷 내려라 닷 내려라  
조선이 좁다 하나 부세와 어떠하니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  
내일도 이리 하고 모뢰도 이리 하자

<어부사시사, 가을9>

물가의 외로운 솔 혼자 어이 식식하고  
비매여라 비매여라  
머흔 구름 恨흔티 마라 世世上상을 7리온다  
至지窻국窓총 至지窻국窓총 於어思사臥와  
波파浪랑聲을 厭염티 마라 塵딘暄暄을  
막논포다

물가의 외로운 소나무는 어이하어 짹짹하?  
배를 매어라 배를 매러라  
험한 구름을 한탄하지 마라. 세상을  
가려주는구나  
찌그덩 찌그덩 어여차  
물결소리 싫어마라, 속세의 소리를 막아주는구나

<어부사시사, 겨울8>

어부사시사에 드러나는 자연은 현실화가 일어난 삶의 공간이다. 즉, 사회를 벗어나 혼자 살고 싶은 마음을 형상화한 작품이 바로 어부사시사라고 할 수 있다. 어부사시사는 윤선도의 은거지에서 지어졌으며 은거지에서 삶의 유세 독립으로 집약하고 있다.<sup>49)</sup> 봄에서부터 겨울까지의 시간 흐름을 바탕으로 시상이 전개되며, 시간의 흐름이 겨울에서 봄으로 다시 이어지는 연속성을 지닌다. 이 점을 고려할 때 유세의 의미는 이중적으로 해석된다. 봄(심리적 해방)→여름(심리적 구속)→가을(심리적 해방)→겨울(심리적 구속)의 흐름은 두 심리가 단순 반복이 아닌, 연속적이며 항구적임을 뜻한다. 결국 윤선도의 ‘유세’는 세속적 현실로의 복귀 가능성을 열어둔, “잠정적 은거”의 뜻을 내포한다. 세속에 대한 심리적 해방과 세속에 대한 심리적인

47) 오선주, 『어부사시사[漁父四時詞]』, 한국민족문학대백과사전.

48) 오선주, 「<어부사시사>의 작품 성격 재고찰」, 『우리어문연구』, 2023, p.187.

49) 위 논문, p.186.

구속이라는 상호모순적인 두 심리가 교차 반복되며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는 점도 이 작품의 특징이다. 내면의 상태가 매우 굳건함을 함축한 표현이 등장하기도 하며 그 표현들로 세속과의 거리두기와 그에 따른 의지를 우회적으로 표출하기도 한다. 반대로 윤선도는 세속에 대한 해방감을 노래함과 동시에 임금을 떠올리는 것을 잊은 적이 없다고 역설하기도 하며, 이를 통해 세속의 심리적 구속감을 드러내기도 한다. 또한 ‘모괴’와 ‘창승’에 이어서 ‘상대부’ 등이 등장하며, 그 등장을 신경 쓰은 화자의 의식이 세속에 심리적으로 구속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sup>50)</sup>

윤선도의 ‘어부사시사’라는 작품은 어부의 생활이 사실적으로 그려져 있어 현실감이 뛰어나고 우리말의 아름다움이 잘 나타나 있으며 자연의 아름다움과 넉넉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심미적 공간과 흥취의 공간을 노래하고 있다. 또한 윤선도 시인만의 아름다운 작품세계 속에서 화자의 세속에 대한 심리적인 해방감의 표현과 세속에 대한 심리적인 구속의 표현들을 다양하게 녹여낸 것을 살펴볼 수 있다.

#### 《참고문헌》

오선주, 「<어부사시사>의 작품 성격 재고찰」, 『우리어문연구』, 2023, pp.179~207.

『어부사시사[漁父四時詞]』, 한국민족문학대백과사전.

<https://terms.naver.com/entry.naver?cid=46642&docId=580819&categoryId=46642>

---

50) 위 논문, pp.189~190.

## 자연의 미덕을 노래하다

- <오우가> 작품소개

인문학부 20241024 김지현

‘오우가’는 6수로 구성된 연시조이며, 연작 시조인 ‘산중신곡’의 마지막 부분에 배치되어 있다. 주지하듯이 ‘오우가’는 물, 돌, 소나무, 대나무, 달 등 다섯 가지 자연물을 화자의 벗으로 선택하여, 각각의 대상이 지닌 특징을 부각하면서 그와 대비되는 소재들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그려내고 있다. 소재로 선택된 대상들은 윤선도가 당시에 은거하던 금쇄동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자연물이며, 각각의 작품에 반영된 대상의 속성은 작가의 주관적 인식에 따라 형상화되어 있다.

윤선도는 사람이 아닌 자연물들을 벗으로 여기면서, 그 사물들이 지닌 속성이 인간들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현실에서 마주쳤던 사람들이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말과 행동을 쉽게 바꾸는 행태와 달리, 작품에서 ‘벗’으로 삼은 자연물들은 변함없이 늘 ‘한결같음’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그 특징으로 내세우고 있다.

아무리 절친한 벗이라고 해도 항상 자신의 곁에 둘 수 없지만, 작품 속 화자가 대상으로 삼은 ‘벗’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찾아가 쉽게 만날 수 있는 존재들이다. 금쇄동의 주변에는 쉽게 발길을 옮겨 찾을 수 있는 ‘수석(水石)’이 널려 있고, 눈을 돌리면 한결같은 모습으로 화자를 맞이하는 ‘송죽(松竹)’을 발견할 수 있다. 아울러 매일 밤에 떠오르는 ‘달(月)’ 또한 어둠을 밝히는 대상으로, 화자와 교감할 수 있는 존재로 해석된다. 작품에서 화자가 ‘벗 삼고자 하는 자연물’이 가진 공통적 속성은 ‘보잘것없고, 작고, 잘 드러나지 않아서 사람들이 쉽게 알아차릴 수 없는 것들이 가진 아름다움과 위대함’으로 볼 수 있다.<sup>51)</sup>

1수는 <오우가> 전편의 序首에 해당한다. 앞으로 제시하게 될 제재를 총괄적으로 언급하면서 초장에서 보는 바, 수석/송죽의 인 것으로 양분하여 休止의 시간을 마련하였으며, 충절을 지어 문답식으로 구성함으로써 단순 나열의 단조로움 피하였다. 또 초장에서는 수석과 송죽을, 중장에서는 달을 각각 거론함으로써 지상의 자연물과 천상의 자연물을 구분하면서도 자연스럽게 연결하고 있다. 화자에게 ‘달’은 더욱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초장의 ‘네 벗’들과 달리 ‘하늘’에 존재하며 밤에만 등장한다는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어둠에 묻혀 만물이 휴식을 취하는 시간에도 높이 떠서 만물을 비추는 존재이기에, 화자에게 더욱 반가운 존재로 다가왔다고 해석된다.

2수는 물에 대한 노래이다. 맑고 流流不息하는 물의 ‘맑음’과 ‘영원성’을 찬양하기 위해 초장과 중장에서 각각 구름빛과 바람 소리가 대조적인 속성을 지닌 자연물로 비교, 묘사되고 있다. 즉 초장과 중장은 정확한 대구를 이루고 있으며 각 장은 역양법을 구사하면서 반전을 꾀하여 중장의 의미를 더욱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전되는 것이다. ‘조타흐나’와 ‘뭍다흐나’ 및, ‘주로 호다’와 ‘하[多]노매라’는 모두 같은 뜻을 지니면서 의도적으로 교체된 단어들, 즉 유사어를 각 장의 동일한 위치에 놓음으로써 시의 완벽한 대구 구조에 기여하고 있다. 물의 대응물로 선택된 구름 빛과 바람 소리가 ‘맑은 것’이라는 표현은 자연에 대한 고산의 섬세한 관찰력을 돋보이게 하는 부분이다.<sup>52)</sup>

51) 김용찬, <오우가>의 작품 세계와 형상화의 의미, 2023, pp.15~16

52) 조해숙, 「오우가 (五友歌)」의 시적 구조와 의미 분석, 1997, pp.6~7

내 버디 멋치나 하니 水石과 松竹이라  
東山의 들오르니 괴더옥 반갑고야  
두어라 이다솟밭괴 또더하야 머엇허리

구름빛치 조타 하니 검기를 쯔로훈다  
바람 소리 몹다 하니 그칠 적이 하노매라  
조코도 그칠 뉘 업기는 물뿐인가 하노라  
<오우가 1수, 2수>

내 벗이 멋이나 하니 수석과 송죽이라.  
동산에 달 오르니 괴 더욱 반갑고야.  
두어라, 이 달섯 밖에 또 더하여 무엇하리.

구름 빛이 좋다 하나 검기를 자로 한다.  
바람 소리 맑다 하나 그칠 적이 하노매라.  
종고도 그칠 뉘 없기는 물뿐인가 하노라.  
<오우가 1수, 2수>

#### 《참고문헌》

- 김용찬, 「<오우가>의 작품 세계와 형상화의 의미」, 『한국시가문화연구』, 2023, pp.95~128.  
조해숙, 「『오우가 (五友歌)』의 시적 구조와 의미 분석」, 『한국시가학회』, 1997, pp.417~439.

## 윤선도 유적에 대하여

- 해남 윤선도 유적을 중심으로

인문학부 20241023 김주희



해남 윤선도 유적은 전라남도 해남군 현산면에 위치한 조선 중기 문신 고산 윤선도가 조성하고 머물던 원림이다. 윤선도가 54세 때인 1640년(인조 18년)에 당쟁에 치여 어릴 적부터 지냈던 해남으로 돌아온다. 그는 해남의 금쇄동에 여러 정자와 각을 짓고 풍류를 즐겼다. 또한 금쇄동과 수정동 내에 자연경승에 근거하여 원림을 조성하였다. 이곳에서 ‘금쇄동기(金鎖洞記)’와 ‘산중신곡(山中新曲)’ 등을 집필하였다. 해남 윤선도 유적

은 2001년 8월 17일 사적으로 지정되었다.<sup>53)</sup>

금쇄동이라는 명칭은 윤선도가 지었다. 윤선도는 금쇄석궤(金鎖錫櫃, 황금의 자물쇠로 잠긴 궤)를 얻는 꿈을 꾸었는데 며칠 후 해남을 거닐다가 이곳이 꿈과 부합된다고 보아 이름을 금쇄동이라 지었다고 한다. 윤선도는 수필집인 ‘금쇄동기’에서 금쇄동의 산수 경관을 자세히 서술하고 있다.<sup>54)</sup>

금쇄동(金鎖洞)은 문소동(聞簫洞) 동(東)쪽 제일봉(第一峰)의 높은 곳에 있으니, 참으로 해와 달을 가까이하고, 바람과 비가 임(臨)한 곳이라 할 수 있다.

금쇄동의 하늘은 환하게 밝으면서 안개가 그윽하고, 천석(泉石)이 진귀하면서 아름다운 교태를 보인다. 산의 후면(後面)은 점차 험해지다가 위쪽은 심하게 험하지 않고, 그 주위가 멀고 높이 뻗어 있어서 사람의 흔적 드물다.

그 금쇄동 골짜기의 입구에 이르르면 동(東)쪽으로는 점로(店路)가 있고, 산세가 심히 험하고 급해서 그 아래를 왕래하는 사람은 다만 붉은 낭떠러지와 푸른색의 절벽만 볼 수 있고, 높이 공중으로 떠올라 있는 낭떠러지와 절벽의 모양이 여름날 구름같이 기이한 봉우리와 아득한 안개가 첩첩이 둘러 있어서 산봉우리만 보일 뿐 거기에 이러한 골짜기가 있음을 알지 못한다.

-윤선도, ‘금쇄동기’ 중

해남 윤선도 유적지 내에는 고산 윤선도 박물관이 있다. 그 안에서 고택 녹우당(綠雨堂)을 볼 수 있다. 덕음산을 뒤로하고 이어지는 성매산, 옥녀봉, 호산 중심에 들어서 있는 녹우당은 풍수지리에 따르는 최고의 명당자리로 손꼽히고 있다. 녹우당이 있는 연동 마을은 예전에 연못이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현재 마을로 들어가는 입구에는 인조 연못이 있다.

녹우당 사랑채는 녹우당의 가장 상징적인 구조물이다. 본래 호남지역의 건축양식은 보통 ‘一’ 자형이거나 ‘ㄱ’ 자형인데 녹우당 사랑채는 서울이나 중부지방 양반가의 건축양식인 ‘ㄷ’

53)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해남 윤선도 유적 (海南 尹善道 遺蹟)」.

두산백과, 「해남 윤선도 유적」.

김양직, 「해남윤선도유적」, 한국민족문화대백과.

54) 두산백과, 「해남 윤선도 유적」.

해남군청 고산 윤선도 박물관, 「금쇄동」.



설치된 솟을지붕 형태의 환기용 구조물이다. 이는 우리나라 전통 가옥에서는 흔치 않은 구조물이라 한다.<sup>55)</sup>

윤선도는 금쇄동과 보길도를 왕래하며 은거했다고 한다. 이번에 조사하게 된 「어부사시사」



는 보길도 보성동에 있는 보길도 윤선도 원림에서 집필하였다. 윤선도가 병자호란으로 인하여 제주도로 가던 중 보길도의 수려한 경관에 매료되어 머물렀던 곳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보길도 윤선도 원림은 1992년 1월 11일 사적으로 지정되었다가 2008년 1월 8일 명승으로 변경되었다.<sup>56)</sup>

윤선도 유적은 고산 윤선도의 시문학 창작의 발상지로, 국문학상의 가치도 있지만, 자연과 사람이 하나가 되는 모습에서 윤선도의 뛰어난 안목을 엿볼 수 있다.<sup>57)</sup>

#### 《참고문헌》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해남 윤선도 유적 (海南 尹善道 遺蹟)」.

[https://www.heritage.go.kr/heri/cul/culSelectDetail.do?ccbaKdcd=13&ccbaAsno=04320000&ccbaCtcd=36&pageNo=1\\_1\\_1\\_0](https://www.heritage.go.kr/heri/cul/culSelectDetail.do?ccbaKdcd=13&ccbaAsno=04320000&ccbaCtcd=36&pageNo=1_1_1_0)

「해남 윤선도 유적」.,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217068&cid=40942&categoryId=33383>

김왕직, 「해남윤선도유적」, 한국민족문화대백과.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73354>

해남군청 고산 윤선도 박물관, 「녹우당」, 「금쇄동」

[https://gosan.haenam.go.kr/bbs/page.php?hid=sub4\\_2](https://gosan.haenam.go.kr/bbs/page.php?hid=sub4_2)

[https://gosan.haenam.go.kr/bbs/page.php?hid=sub4\\_4](https://gosan.haenam.go.kr/bbs/page.php?hid=sub4_4)

완도군청, 「보길도 윤선도 원림」.

<https://www.wando.go.kr/tour/sub.cs?m=200>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보길도 윤선도 원림 (甫吉島 尹善道 園林)」.

[https://www.heritage.go.kr/heri/cul/culSelectDetail.do?ccbaKdcd=15&ccbaAsno=00340000&ccbaCtcd=36&pageNo=1\\_1\\_1\\_0](https://www.heritage.go.kr/heri/cul/culSelectDetail.do?ccbaKdcd=15&ccbaAsno=00340000&ccbaCtcd=36&pageNo=1_1_1_0)

55) 해남군청 고산 윤선도 박물관, 「녹우당」.

56) 「해남윤선도유적」.,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완도군청, 「보길도 윤선도 원림」.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보길도 윤선도 원림 (甫吉島 尹善道 園林)」.

57)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해남 윤선도 유적 (海南 尹善道 遺蹟)」.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보길도 윤선도 원림 (甫吉島 尹善道 園林)」.

## 슬프고도 찬란했던 영랑의 봄

- 「모란이 피기까지는」 작가의 생애

20231076 중국학과 이해리



영랑(永郎) 김윤식(金允植)

영랑(永郎) 김윤식(金允植)은 1903년 1월 16일 전라남도 강진에서 출생하였다. 강진보통학교(현 강진중앙초등학교)를 다니다가 1915년에 졸업한 뒤, 14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부모님의 권유로 혼인하였으나 1년 반 만에 부인과 사별하였다.<sup>58)</sup> 이후 서울로 상경하여 조선중앙기독교청년회관에서 영문학을 공부하였고, 1917년 휘문의숙에 입학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문학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김영랑은 시인이기 이전에 독립운동가이기도 하였다. 서울 유학 중 1919년에 3·1 만세 운동이 일어나자 고향인 강진에서의 거사를 위해 구두 안창 속에 독립 선언문을 숨겨와 강진 4·4 만세 운동을 주도하였다가,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대구 형무소에서 6개월간 옥고를 치렀다.<sup>59)</sup> 1920년에는 일본으로 건너가 아오야마가쿠인 중학부를 거쳐 영

문학과에 진학하였고, 이때 독립운동가 박열(朴烈) 및 시인 박용철(朴龍喆)과 인연을 맺었다.

영랑은 박용철·정지용·이하운 등과 함께 시문학파를 결성하였고, 1930년 『시문학(詩文學)』에 ‘동백냇에 빛나는 마음’, ‘언덕에 바로 누워’ 등의 시를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작품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후 『조광(朝光)』, 『여성』, 『문장』, 『인문평론(人文評論)』, 『백민(白民)』, 『조선일보』 등의 문예지에 80여 편의 시와 수필·평문을 발표하였다.<sup>60)</sup>

김영랑의 시 세계는 크게 전기와 후기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기 시의 특징은 나라를 빼앗긴 한을 남도 사투리로 표현함으로써 친근하고 향토적인 운율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슬픔’이나 ‘눈물’이라는 용어가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그 비애와 절망이 영탄이나 감상에만 기울지 않고 마음의 내부로 향하여 순수한 정감의 끝을 보여준다. 그의 초기 시는 당대 한국 순수시의 극치에 도달했다고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1940년을 전후하여 발표된 ‘거문고’, ‘독(毒)을 차고’, ‘망각(忘却)’, ‘묘비명(墓碑銘)’과 같은 후기 시에는 형태적인 변모와 함께 인생에 대한 깊은 회의와 죽음에 대한 의식이 나타나 있다. 일제강점기 말 김영랑은 독립운동가로서 창씨개명과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작품에도 일제에 대한 저항 의식을 꾸준히 표출하며 지조 있는 저항 시인으로서의 면모를 보였다.

반면 광복 이후에 발표한 ‘바다로 가자’, ‘천리를 올라온다’ 등에서는 그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 의욕을 엿볼 수 있다. 일제강점기에서의 제한된 공간 의식과 강박 관념으로부터 비롯된 자학적 충동은 떨쳐버리고, 새 나라 건국에 참여하려는 의욕으로 충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광복 이후 김영랑은 정치인으로서 사회 활동에 적극 참여했는데, 강진에서 우익 운동을 주도하고 1948년에 제헌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낙선하였다. 1949년에는 공보처의 출판국장을 지냈고 이후 비교적 여유 있는 삶을 영위하다가, 6·25 전쟁 중 9·28 서울 수복 당

58) 박석덕, 「순수 서정시인이자 항일 문학가 김영랑의 강진 생가 이야기」, 『다산과 현대』 제10호, 연세대학교 강진다산실학연구원, 2017, p.245.

59) 위의 논문, pp.244~245.

60) 김학동, 『김영랑(金永郎)』,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시 후퇴하는 북한군의 유탄에 맞아 1950년 9월 29일 향년 47세로 사망하였다.

김영랑의 대표 작품으로는 ‘모란이 피기까지는’ (1934), ‘거문고’ (1939) 등이 있으며, 조국의 독립을 염원하며 순결한 마음의 세계를 표현하여 순수 서정시라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한 공로를 인정받아 2008년 금관문화훈장, 2018년 건국포장이 추서되었다.

#### 《참고문헌》

박석덕, 「순수 서정시인이자 항일 문학가 김영랑의 강진 생가 이야기」, 『다산과 현대』 제10호, 연세대학교 강진다산실학연구원, 2017, pp.243~247.

김학동, 『김영랑(金永郎)』,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09839>

## 「모란이 피기까지는」 작품 해설

- 「모란이 피기까지는」 작품소개 및 시학적 의미

20241086 인문학부 전태랑

‘모란이 피기까지는’은 김영랑(金永郎) 시인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1934년에 처음 발표되어 지금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는 시이다. 이 작품은 화자가 ‘모란’이 피고 지는 것을 보고 느끼는 감정을 표현한 작품으로, 김영랑 시인의 특징이 잘 드러나 있다.

먼저 이 시의 시학적 의미에 대해 살펴보자면, 사실 영랑의 시는 뚜렷한 의미를 찾아보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김영랑의 시에서 형식은 의미를 효과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수단이나 도구라고 보기는 어렵다.<sup>61)</sup>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나는 비로소 봄을 여인 설움에 잠길 테요  
오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덤던 날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 버리고는  
천지에 모란은 자취도 없어지고  
뻗쳐 오르던 내 보람 서운케 무너졌느니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아  
삼백예순 날 하냥 섭섭해 우웁네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모란이 피기까지는>

오히려 김영랑의 시는 형식 자체가 고유한 의미를 발생시킨다고 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모란이 피기까지는’이라는 작품을 놓고 볼 때, “모란이 피기까지 봄을 기다릴 것이다.”<sup>62)</sup> 라는 한 문장으로 주제를 정리할 수 있다. 화자가 왜 봄을 기다리고, 모란이 무엇을 상징하는지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 시에서 모란이 무엇을 상징하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김영랑의 욕구, 동경 등이 이미 충분히 언어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토대로 시의 의미를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처음의 1행과 2행 그리고 마지막 11행과 12행은 모란이 피기 이전의 상황에 해당하며, 나머지 3행부터 10행까지는 모두 모란이 떨어진 뒤의 상황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2가지 특징을 확인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시의 전개가 개화 이전을 지나 낙화 이후 그리고 다시 개화 이전의 방식을 따르고 있다는 점이며, 두 번째는 모란이 피어나 있는 순간이 시에서 배제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를 더 자세히 살펴보면, 모란이 피어나 있는 순간은 모란이 피길 바라는 화자의 마음이 충족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은 굳이 언어화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모란이 낙화된 상태를 표현할 때보다는 언어화될 필요성이 적은 것이다.

61) 홍승진, 「김영랑 시의 음수율과 시학적 의미 - ‘모란이 피기까지는’을 중심으로 -」, 『한국문예비평연구』 제47호,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15, p.49.

62) 위의 논문, p.49.

반면 작품에서 전체적으로 모란이 피지 않은 상황을 그리고 있다는 것은 현실에서 행복하지 못한 화자의 의지를 나타낸다. 화자의 의지는 언제나 현실에 대해 불만족스러운 상태에 처해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화자의 의지 표출이 모란이 피고 지는 것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 자세히 살펴보면, 개화 이전과 낙화 이후 모두 같은 시간대이다. 꽃이 지고 난 뒤의 시간은 꽃이 피기를 기다리는 시간이 되기 때문이다. 다만 개화 이전, 낙화 이후를 다르게 부른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3행의 “모란이 똑똑 떨어져버린 날”에서 4행의 “나는 비로소 봄을 여인 설움에 잠길 테요”까지는 하나의 완벽한 문장을 이룬다.<sup>63)</sup> 이는 3행에서 “똑똑”이라는 강조의 부사어를 추가함으로써 의지의 고조 효과를 발생시킨다. 또한 1행의 “피기까지는”과 3행의 “떨어져 버린 날”을 비교해 보면, 1행은 모란이 피기까지의 시점이 불분명하지만 3행은 특정한 시간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모란이 피기까지 기다리는 1년보다 모란이 떨어지는 하루가 훨씬 짧은 것 또한 화자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5행에서 “오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덥던 날”에서는 시간적 배경을 나타냄과 동시에 꽃이 곧 질 것이라 암시하고 있다. 6행에서는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 버리고는”이라고 표현하면서, 떨어진 꽃잎마저 시들어 버렸다는 강조법을 보여준다. 7행과 8행에서는 “천지에 모란은 자취도 없어지고”, “뺨쳐 오르던 내 보람 서운케 무너졌느니”라고 표현하면서 모란이 시드는 배경이 더욱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다. 9행에서는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아”라고 표현되면서 모란이 낙화하는 것이 화자의 한 해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볼 수 있다. 시의 마지막 부분인 11행과 12행에서는 개화 이전의 인식으로 되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진행 방식으로 볼 때, ‘모란이 피기까지는’에서 증가와 감소의 구조로 성립되는 극적인 음수율은 화자의 의지가 고조되면서 폭발에 이르렀다가 다시 잦아지는 시학적 의미와 자연스럽게 맞아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sup>64)</sup>

‘모란이 피기까지는’이란 시를 해석해 보았을 때 알 수 있는 것들은 화자의 감정의 증가와 감소의 음수율을 통하여 의지를 효과적으로 표현하였고, 이러한 음수율의 형식이 아름답고 정교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앞서 서두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영랑의 시는 고유한 형식 자체가 고유 의미를 발생시킨다. ‘모란이 피기까지는’이라는 시는 화자가 “모란이 피기까지 봄을 기다릴 것이다”라는 한 문장으로 간추릴 수 있다. 따라서 김영랑의 시는 특유의 음수율과 고유한 의미를 갖는 시라고 정리할 수 있다.

#### 《참고문헌》

홍승진, 「김영랑 시의 음수율과 시학적 의미 - 「모란이 피기까지는」을 중심으로 -」, 『한국문예비평연구』 제47호,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15, pp.27~62.

63) 위의 논문, p.52.

64) 홍승진, 「김영랑 시의 음수율과 시학적 의미 - 「모란이 피기까지는」을 중심으로 -」, 『한국문예비평연구』 제47호,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15, p.58.

## 김영랑이 기다리던 찬란한 봄 - 「모란이 피기까지는」의 문학사적 의의

20231077 국어국문학전공 이환

김영랑(金永郎)은 일제의 압박이 거세지기 전인 초·중반까지는 향토적이고 토속적인 운율이 살아있는 서정적이고 세련된 시를 여럿 발표하는 시인이었다. 하지만 일제의 압박이 심해지고 폭압적인 체제하에 놓이게 되면서, 후기의 김영랑의 시는 1940년대까지 저항적이고 날이 선 느낌으로 변하게 된다. 회유와 압박이 점점 거세지면서 1940년 절필을 선언한 김영랑은 해방이 오기까지 일본어로 단 한 줄의 글조차 적지 않으며 일제에 저항했다. 그의 대표작으로는 ‘모란이 피기까지는’,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 등이 있다. 이 작품들은 김영랑이 일본에 저항을 표하는 대표적인 작품들로 꼽힌다.

‘모란이 피기까지는’은 1934년 『문학(文學)』에 발표되었고, 1935년 간행된 『영랑시집(永郎詩集)』에 수록되었다. 영랑은 모란을 봄의 절정, 즉 봄의 모든 것으로 상징화하면서 삶의 보람, 삶의 목적을 모란에 귀결시키고 있다. ‘모란이 피기까지는’은 아름다운 모란이 피기를 기대하며 기다리는 마음을 서정적으로 노래한 시다. ‘모란이 피기까지는’의 화자가 산정하는 상황과, 그 상황을 통해 산출되는 감정이 모두 모란에 집중되어 있다. 모란이 꽃을 피우기 전의 기대감부터 시든 후의 절망감까지, ‘나’의 감정은 모란의 상태와 관련된 환경에 결부된다.<sup>65)</sup> 특히 모란이 핀 동안을 ‘찬란한 슬픔의 봄’이라고 표현하여 그 모란을 감상하는 행복과 모란이 저무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잘 다듬어진 언어로 전달해 내었다. 이 작품은 봄을 기대하는 마음과 봄을 보내는 서러움을 모란을 통해 표현함으로써 ‘기다리는 정서’와 ‘잃어버린 설움’을 대응시키고 모란으로 상징되는 소망의 실현에 대한 집념을 보인다. 모란이 피어있는 잠깐의 시간을 위해 오랜 기다림과 고통을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자세를 보이는데, 이것은 당시 시대 상황과 연관 지을 수 있다. ‘나의 봄을 기다리겠다’는 것이 일제강점기 시대의 오랜 고통을 광복이라는 봄, 봄날을 기다리기 위해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것으로 연결된다.<sup>66)</sup> 일제에 저항적이었던 마음을 시에 드러냄과 동시에 광복을 바라는 마음을 함께 담아 서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찬란한 슬픔의 봄을 기다린다’라는 구절에서 ‘슬픔’은 덧없음·허무함을 뜻하고 ‘봄’은 광복과 해방, 그리고 ‘기다린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는다는 의미로, 광복을 바라며 끝없이 희망을 버리지 않고 기다리지만, 그 속에는 덧없음과 허무함을 담으며 역설적으로 그 의미를 강조했다. 이처럼 김영랑은 ‘모란이 피기까지는’이라는 시에서 주제가 되는 모란을 통해 서정적인 시로 자신의 서러움과 안타까움, 그리고 기다림이라는 감정을 잘 녹여냈다.

영랑은 김소월 이후 우리말을 가장 아름답게 구사하는 시인이었다. 1920년대 중반 이후 퍼진 카프 중심의 목적주의적 계급문학을 배격하고 시문학을 주도하여 순수한 서정의 세계를 새로운 문학의 한 지평으로 제시했다. 시문학파는 일체의 목적적, 정치적, 사회적 관심을 떠나 섬세한 언어의 조탁과 아름답고 그윽한 서정의 세계에 탐닉하는 순수시를 추구하였다. 시문학파를 통해 언어 구사 능력과 형식적 완성도 면에서 한 단계 성장을 이루었다.

65) 장보미, 「김영랑의 시 「모란이 피기까지는」의 음상적 특징 분석」, 『한국시학연구』 제37호, 한국시학회, 2013, p.321.

66) 홍승진, 「김영랑 시의 음수율과 시학적 의미 - 「모란이 피기까지는」을 중심으로 -」, 『한국문예비평연구』 제47호,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15, p.27.

《참고문헌》

장보미, 「김영랑의 시 「모란이 피기까지는」의 음상적 특징 분석」, 『한국시학연구』 제37호, 한국시학회, 2013, pp.315~337.

홍승진, 「김영랑 시의 음수율과 시학적 의미 - 「모란이 피기까지는」을 중심으로 -」, 『한국문예비평연구』 제47호,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15, pp.27~62.

## 정약용이 살아온 시간

-정약용의 생애

인문학부 20241111 흥현기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문신이자 실학자를 뽑으라면 대표적으로 정약용(丁若鏞)을 뽑을 수 있다. 본관은 나주이고 호는 다산(茶山), 사암(俟菴), 탁옹(籟翁), 태수(苔叟) 등이 있다.

정약용은 임오화변이 일어나던 해인 1762년 8월 5일 경기도 광주부 초부면 마재리(현재의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에서 아버지 정재원(丁載遠)과 어머니 해남윤씨의 넷째 아들로 태어났다. 이 지역은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지역이다. 현재는 실학박물관 같은 정약용 유적지가 조성되어 있다. 정약용은 어릴 때 조용한 성격이었다고 한다. 정약용은 어려서부터 총명이 출중하여 4살에 천자문을 배우고 10살 이전에 시문집을 저술하여 아버지를 포함한 장로들의 칭찬을 받았다고 한다. 15살에는 풍산 홍씨와 결혼했다. 22살에는 과거시험에서 생원으로 합격해서 성균관에 들어갔다. 여기서 정약용은 능력이 좋아서 정조의 신임을 받았다고 한다. 또 1년 후인 1784년에는 천주교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 31세에는 부친이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관직에서 내려왔다. 이 시기에 도르래의 원리를 사용하는 거중기를 설계해서 수원 화성 건축을 수월하게 할 수 있었다.

정조가 죽고 순조가 즉위하자 노론들의 음모로 인해 정약용은 사형에 처할 뻔했지만 감형받아서 만덕산 중턱에 있는 다산초당으로 유배를 가게 되었다. 정약용은 유배 기간인 18년 중 11년을 다산초당에 머물렀다. 그는 그곳에서 약 500권의 책을 썼다. 유배당했을 때 그의 대표작으로는 『經世遺表』, 『牧民心書』, 『欽欽新書』가 있다. 목민심서는 수령, 관리가 걸어야 할 올바른 길과 관리들의 폭정을 비판한 책이다. 또한 경세유표는 국정에 관한 모든 제도 법규에 관해서 쓴 책이다. 마지막으로 흠흠신서는 조선시대의 형법을 다룬 책이다

1818년 정약용은 18년의 유배를 마치고 그의 고향인 경기도로 올라왔다. 그 후로는 저술 활동에 몰두하여 남은 삶을 보내다가 1836년 2월 22일에 세상을 떠났다. 그때 그의 나이는 향년 74세였다.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시는 '회혼시'였다. 또 정약용은 죽기 전 자녀들에게 “한양을 벗어나는 순간 기회는 사라지니 무슨 일이 있어도 버티라.”라고 했다고 한다.

정약용은 많은 업적을 남겼다. 그의 대표적인 업적으로는 거중기의 발명과 수원화성의 건립 등이 있다. 거중기는 건물을 건설할 때 시간이 절약되고 간편하고 편리하여 백성들이 편하게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거중기로 건설한 건물은 대표적으로 수원화성이 있다.

정약용은 조선 근대 공학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그가 쓴 대부분 저서는 유배지인 강진에서 저술했다. 이후에 그의 명성이 높아진 것도 아무것도 없는 유배지에서 엄청난 정신력으로 대단한 책들을 저술했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송재소, 『시(詩)로 읽는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의 생애와 사상』, 2012, 세창출판사.

## 정약용이 바라본 조선 후기 세상

-탐진촌요 소개

국어국문학전공 20191093 정원화

『耽津村謠(탐진촌요)』는 부패한 조선 후기의 현실을 비판하는 문학이다. ‘탐진’은 전라남도 강진군의 옛 이름으로 강진의 노래라는 뜻이다. 사실적인 표현이 돋보이며 직유법과 도치법을 사용해 시적 상황을 표현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탐관오리의 횡포를 고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산 정약용은 강한 애민 정신이 있던 인물로, 유배 생활하는 동안 지역에서 세금을 핑계로 백성들을 수탈하는 지방 관리를 보며 아쉬움을 가졌다. 민중의 삶을 그려낸 한시이다.

棉布新治雪樣鮮 (면포신치설양선)  
黃頭來博吏房錢 (황두래박이방전)  
黃頭來博吏房錢 (황두래박이방전)  
三月中旬道發船 (삼월중순도발선)

무명베 눈처럼 선명하게 새로 지었네  
나졸들 달려와 이방전으로 바뀌가고  
누룩시킨 토지세 독촉이 성화갈네  
삼월달 중순에는 세선이 떠난다고

-<탐진촌요 7수>

『耽津村謠』의 7수는 무명베를 짜는 백성들과, 탐관오리들에게 수탈당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1구는 촌민들이 힘들게 만드는 무명베에 관한 내용이다. 무명베를 희고 곱게 만들었다고 설명하며, 촌민들의 노동에 힘든 노동에 대해 알 수 있다. 2구는 무명베를 짜자마자 나졸들에게 갈취당하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직역하면 이방의 돈을 지불하고 무명베를 갖고 갔다고 이해할 수 있지만, 실상은 제값을 치르고 가져간 게 아니다. 결국 제값을 받지 못한 채 부조리하게 무명베를 팔게 된 백성들의 억울함이 담겨 있다. 3구는 토지세 독촉에 관한 내용이다. 토지세, 당신의 전세로 2결씩 부담하였다. 재해를 입은 토지에 대해서 세금을 면제시켜 주는 제도가 있었는데 탐관오리들은 관청에 토지를 재해로 보고하고 농민들에게 착취했다. 결국 부적절한 방법으로 수탈했음을 고발한다. 4구는 더욱 사실적인 표현으로 농민들의 수탈당하는 삶을 보인다. 3월 중순에 세금을 실은 배가 조정으로 가게 되는데, 그렇기에 서둘러 세금을 납부하라고 독촉하는 내용이다.

주요 시어에 대한 분석으로 당시 시대상을 자세히 파악할 수 있다. 黃頭(황두)는 중국 한나라 때 선박을 관장하는 벼슬 이름으로 『耽津村謠』에서는 지방 말단 관리를 뜻하며 탐관오리를 의미한다. 博(박)은 ‘취하다’, ‘빼앗다’라는 뜻이다. ‘박’이라는 시어로 탐관오리가 수탈하고 있음을 말한다. 督稅(독세)는 ‘세금을 독촉하다’라는 뜻이며, 道發船(도발선)은 도에서 조정으로 세금을 의미하는 세미(稅米)를 실은 배를 말한다.

당시 시대적 상황을 사실적인 직유법으로 표현한 『耽津村謠』에서 볼 수 있듯이 당시 시대는 탐관오리의 부패가 성행하던 시기였다. 정조 사후, 조정은 과거로 돌아갔다. 고위 관리에 대한 임명권은 물론이고 국가의 세금 역시 착복하기 시작하며, 부패가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일제강점기까지 이어졌다. 다산 정약용은 이러한 상황을 폭로하고 고발하기 위해 한시를 썼다.

《참고문헌》

김태희, 「유배객 정약용, 강진에 살다」, 『다산과 현대』, 다산과 현대 제4호, 연세대학교 강진  
다산실학연구원, 2012, pp.351~362

최미경, 「강진과 남양주에서 만난 정약용」, 『다산과 현대』, 다산과 현대 제12호, 연세대학교  
강진다산실학연구원, 2019, pp.299~301.

## 다산의 생각을 담다

-문학 외 저작 소개

사회복지학부 20231055 우주연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은 하나의 학문을 다룬 것이 아닌 실증적으로 사람들의 삶에 필요한 학문을 연구하여 책으로 집필하였다. 정치와 경제, 법률과 지리, 의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부각을 나타낸 정약용을 우리는 집대성자라고 부른다. 조선 후기 다른 위대한 실학자들도 많았지만 단지 정약용에게만 이러한 수식어가 붙었다. 이는 그가 실학의 세 가지 정신인 경제치용, 이용후생, 실사구시는 학문을 통해 모두 실현했기 때문이다. 정약용은 필사본으로 500권 이상이 되는 많은 책을 집필하였다. 우리는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저서라 꼽히는 『經世遺表』, 『牧民心書』, 『欽欽新書』에 대해 간단히 다룰 것이다.

경제유표는 행정기관의 운영과 관제, 토지, 부세 제도 등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목민심서는 정책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으며 어떻게 정치를 실현해야 하는지에 대해 저술하고 있다. 흠흠신서는 법률서로 조선시대 및 중국의 형사 판례들을 발췌하여 다루고 있다.

다산(茶山)은 사대부 관료들이 법률 서적을 잘 읽지 않아 재판의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다. 이는 살인 사건의 조사와 심리, 처형의 과정이 매우 형식적이고 무성의하게 진행돼 죄 없는 백성들을 옥에 가둠으로써 폐해가 크다고 한탄하였다. 해서 이것을 바로잡고 계몽의 필요성을 느껴 흠흠신서의 집필에 착수한 것이고, 1819년(순조 19)에 완성하여 1822년에 편찬되었다. 한국 법제 사상 최초의 율학 연구서이며, 동시에 살인 사건을 심리하는 데 필요한 실무 지침서가 되었다. 이외에도 법의학 및 사실인정학(事實認定學), 법해석학을 포괄하는 일종의 종합 재판적 저술이라고 할 수 있다. 다산(茶山)은 흠흠신서의 발간으로 형법사상의 선구자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흠흠신서는 당시의 형정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목민심서는 다산(茶山)이 강진(康津)에 유배되어 귀양살이하던 시절(1801년~1818년)에 쓰였다. 해당 저서는 백성을 기르는 목자(牧者)인 목민관이 한 고을을 맡아 다스림에 있어 지녀야 할 정신 자세와 함께 실무 면에서 치국안민(治國安民)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목민심서의 요소요소에서 당시의 시대상과 관료 계급의 부패상을 신랄하게 꼬집어 비판하면서 정치의 개혁과 국민경제와 복지의 실질적 향상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후부터는 목민심서의 구성에 대해 간략히 다루고자 한다. [부임(赴任), 율기(律己), 봉공(奉公), 애민(愛民)] 목민관이 실무에 임하기 전에 스스로 갖추고 다짐해야 할 요건들이 4개의 편으로 구성되었다. [경(更), 호(戶), 예(禮), 형(刑), 공(工)] : 목민관의 업무에 도움이 되는 실무적인 내용들로 구성되었다. 외에도 끝부분에는 굶주리는 백성들을 진휼하기 위한 정책과 후임자에게 자리를 물려주고 떠남에 있어 지녀야 할 자세가 저술되었다. 목민심서는 인명 사건의 해결에 관한 사항뿐 아니라 수령이 관장하는 '형전' 업무에 대한 주요 내용들을 다루는데, 수령이 사건 해결 과정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을 자세하게 서술하고 이에 대처하는 방식 등을 현실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해당 저서는 당시의 법과 제도에 관하여 전면적인 개혁을 담고 있지 않다. 다산(茶山)은 법과 제도의 개혁은 시일이 걸리기에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저 기다릴 수 없다고 생각해 당시의 현행과 법, 제도 내에서라도 이를 해결하고자 수령의 개인적 자질과 덕목, 역할에 대해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즉 다산(茶山)은 목민관이 지역을 제대로 운영하여 백성을 살리길 바라는 마음으로 목민심서를 저술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다를 저서는 경세유표이며 원 제명은 방례초본(邦禮草本)이다. 1817년(순조17)에 목민심서와 같이 유배 중 저술되었지만, 미완성으로 남아 있다. 앞서기에 근본적인 개혁을 통해서만 국가와 사회가 유지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저술 의도를 밝혔다. 이후부터는 경세유표의 구성에 대해 요약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사회 체제의 근본적인 개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가능한 것들이 제기되어 있다. 그뿐만 아니라 토지 제도 개혁과 민생 안정에 더불어 기술 발달과 상공업 진흥을 통한 부국강병의 실현이라는 주장이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이 책은 다산(茶山)의 정치 및 사회적 이념에 대한 이해뿐 아니라 당시 실학자들이 궁극적으로 지향하고자 한 사회의 성격을 이해하는 것에 큰 도움을 준다. 더불어 당시 사회의 실상과 제반 모순을 비판적 안목에서 상세히 서술하고 있어 조선 후기의 정치 및 사회, 경제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 《참고문헌》

이미화·주성빈, 「다산(茶山)의 형벌관을 통해 바라본 오늘날 형벌제도의 시사점 - 『흠흠신서(欽欽新書)』를 중심으로」, 『경찰학논총』,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2015, pp.119~143.

이다윗, 「목민심서(牧民心書)에 나타난 지방정치엘리트의 리더십 자질과 역할」, 『민족사상』, 한국민족사상학회, 2018, pp.89~123.

## 정약용의 유적지 기행

-다산초당을 중심으로

인문학부 20241013 김민주

雨打欵濃紫  
風微送澹香  
幽閒似靜女  
胡蝶來何忙  
數朵渾含蕊  
一毬忽破香  
遊蜂聖得識  
黃翅著紅房  
半含紅纈結  
全綻紫毬香  
更好前霄雨  
霏微洗澹粧

비가 쳐서 짙은 꽃이 기울더니만  
산들바람 담백한 향 실어 오누나.  
한가롭기 말쑥한 여인 같은데  
나비들 어이 이리 바쁘게 찾나.  
몇 떨기 머금은 꽃술 속에서  
공 하나 향기 문득 깨트리누나.  
벌들이 거룩함 익히 잘 알고  
나비도 홍방(紅房)에 붙어 있구나.  
붉은 실 반 머금어 맺혀 있더니  
자주빛 공 향기를 터뜨리누나.  
간밤에 내린 비가 더욱 좋아서  
보슬비가 얇은 단장 씻어주었네.

-정약용, 『다산시문집』 중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과 관련된 유적지는 정약용 생가와 다산초당(茶山草堂)이 있다. 그 중 다산초당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려 한다. 정약용은 이승훈과의 접촉을 통해 천주교에 입교하게 되었다. 당시 천주교 신앙은 집권층으로부터 비판받고 있었다. 그로 인해 결국 유배 문건인 1801년의 신유박해에 연루되어 전라도로 유배를 시작하게 되었다.

다산초당은 '다산(茶山)이 기거한 초가'라는 의미이다. 원래 이름은 굴호초당(橘湖草堂)이었다. 굴호초당은 푸른 나무가 우거지고 잔잔한 호수가 있는 곳에 지어진 초가라는 의미로 지어진 것 같다.<sup>67)</sup> 당시에는 두 칸짜리 초가집이었지만 현재의 다산초당은 1956년에 기와집으로 복원한 것이다.

다산초당은 수림(樹林)으로 덮인 비탈면을 깎고 자연적으로 쌓아 판판한 대(臺)를 건설하였는데, 동서 21m, 남북 13m에 이른다. 그 안쪽은 서쪽으로 길을 내어 동서 12m, 남북 8m에 이르는 부지를 구축하고 여기에 정면 5칸, 측면 2칸의 건축물을 세웠다. 당(堂) 형태의 건축물로서 중앙에 1칸짜리 마루방을 만들고 그 좌우를 각 1칸짜리 온돌방을 배치하였다. 동·서·남쪽에 반 칸짜리 툇마루를 두었다. 온돌방은 남향으로 1958년에 재건하였는데, 초가가 아닌 와당이다.<sup>68)</sup> 초당에는 작은 연못이 있고, 그 둘레에 꽃을 심었다. 주변에는 각종 수목을 심어 울창한 수풀을 이룬다. 정약용은 초당 둘레에서 철 따라 피고 지는 온갖 꽃나무들을 노래한 20수의 연작시를 지었다. 이 20수 연작 속에 그려진 입주 초기 다산초당의 풍경은 이렇다.

굴원(橘園), 즉 유자 동산 서편에 1천 그루 소나무가 울창한 숲속에 한 줄기 시냇물이 흘러간다. 시내가 처음 발원하는 곳 바위 사이에 말끔한 초당 하나가 있다. 초당에는 작은 연못이 있고, 연못 중앙에 돌로 봉우리 셋을 만들었다. 그 둘레에 온갖 꽃을 돌려 심어, 철 따라 아른대는 꽃무늬가 물 위에 비친다.

67) 정민, 「다산초당의 공간배치와 경관요소」, 『다산과 현대』 제14호, 2021, p.9.

68) 정동오, 「한국 전통정원의 공간구성과 다산 정약용 : 다산초당과 「조석루기(朝夕樓記)」를 중심으로」 『다산과 현대』 제5권, 2012, p.365.

우물 샘 즉 다천(茶泉) 옆에 복숭아나무가 자라고 숲은 동백이 군집을 이룬다. 바자울을 쳐서 바닷바람을 막고, 안쪽에는 모란을 심었다. 언덕 곁에는 작약의 새순이 뿔뿔하게 솟아오른다. 초당 옆에는 수구화와 일본에서 건너온 석류가 심겨 있었다. 정약용은 마당 한 구석에 치자 뿌리를 구해 와서 몇 그루로 쪼개어 나눠 심고, 배롱나무도 심었다. 연약한 월계화는 화분에 심었다. 버드나무 그늘을 피해 해가 잘 드는 곳에 접시꽃이 자라고, 잡초 더미 속에는 국화도 몇 뿌리가 보였다. 자초(紫草)의 흰 꽃이 피고, 담장 아래에는 약초인 반하(半夏)가 움트었다. 집 옆에는 포도 넝쿨이 자라난다. 집 아래 언덕에도 밭을 새로 일구었다.<sup>69)</sup>

다산(茶山) 정약용은 다산초당에서 11년간 머물면서 실학 체계의 대부분을 구상하였고 500여 권에 달하는 저서를 집필하였다. 대표 저서로는 『목민심서』, 『경세유표』, 『논어고금주』가 있다.

#### 《참고문헌》

정민, 「다산초당의 공간배치와 경관요소」, 『다산과 현대』 제14호, 연세대학교 강진다산실학연구회, 2021, pp.7~44.

조현종, 「대숲과 송림과 茶山과...-전남 강진 다산 초당」, 『월간 샘터』 제23호, 샘터사, 1992, pp.54~59.

정민, 「다산의 초당 경영과 공간 구성」, 『문헌과 해석』 제39호, 태학사, 2007, pp.13~32.

정동오, 「한국 전통정원의 공간구성과 다산 정약용 : 다산초당과 「조석루기(朝夕樓記)」를 중심으로」, 『다산과 현대』 제4호, 연세대학교 강진다산실학연구회, 2012, pp.363~373.

---

69) 정민, 앞의 논문. p.11.

## 이청준(李清俊) 인생 발자취

-이청준의 생애

20231102 국어국문학전공 최준우



우리나라의 소설가 미백(未白) 이청준(李清俊) 선생은 1939년 8월 9일 전라남도 장흥군 대덕면 진목리에서 태어났다. 형제로는 5남 3녀 중 4남으로 태어났고 미백이란 호는 머리가 아무리 썩더라도 노모 앞에서는 썩 머리가 아니고 절대로 세어서는 안 되는 머리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1930년대에 식민지 시기에 태어나 어려운 유년 시절을 보냈고 6세에 남동생이 4살에 홍역으로 만형이 26세에 폐결핵으로 다음 해에는 아버지가 화병과 돌림병에 걸려 세상을 떠났을 만큼 유년 시절을 어렵게 보냈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p>70)</sup>

그 후 1948년 9살이 되던 해 좀 늦은 나이에 대덕동초등학교(현 회진초등학교)에 입학하였고 2, 3학년 무렵부터는 이미 어린 시절에 죽은 큰형의 남긴 소설 읽기에 열중하였기 때문에 평소 음악과 문학을 좋아했던 큰형은 책 속에 남긴 메모를 통해 이청준 작가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sup>71)</sup> 도중에 한국전쟁을 겪고 어려운 시기를 이겨낸 이후 이청준 작가는 집안 형편은 어려웠지만 두뇌가 명석하여 공부는 잘하였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많은 도움으로 광주에 가서 시험을 치르고 1954년 광주서중에 입학할 수 있었다.

중학교에 들어가서도 열심히 노력하며 학창 시절을 보내 성적이 좋아 1957년에는 광주일고에까지 합격하여 고교 시절에는 3학년 때에 학생회장도 하는 등 괜찮은 학창 시절을 보냈다. 하지만 학교 밖에서는 고향 집이 남의 손에 넘어가고 식구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방학에 내려간 고향에서는 흠어머니가 남의 집이 된 옛날 집에서 맞이하여 다시 새벽에 떠나보내는 등 여전히 어려운 생활을 이어나간다.<sup>72)</sup>

그렇게 성인이 된 후에는 1960년 서울대 문리대 독문과에 입학하였고 당시 4.19와 5.16 같은 어려운 사건들을 또다시 겪으면서 이때 당시 독일의 소설가인 Thomas Mann의 작품을 많이 읽기도 하였다고 한다.<sup>73)</sup> 1962년에는 육군 입대를 하고 1964년에 제대를 한 후 복학하여 다시금 군입대 전에 자신이 존경하였고 많이 좋아했던 독일의 작가 토마스 만의 강독을 수강했다. 그만큼 토마스 만의 영향을 많이 받아, 대표작이나 작품들은 만의 특유의 예술성과 시민성과 같은 특징들을 찾아볼 수 있다.<sup>74)</sup>

1965년에는 드디어 그의 작품 '퇴원'이 신인상으로 당선되어 등록되므로 본격적인 작가의

70) 최종배, 「이청준의 자전작 연작 소설 '가위 및 그림의 음화와 양화'에 대한 정신분석적 고찰」, 『정신분석』 제2호, 용인정신병원 정신건강의학과, 2017, p.18.

71) 위의 논문 p.19.

72) 마희정, 「이청준의 <눈길>에 나타난 '모성성」, 『현대소설연구』 제47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11, pp.7-8.

73) 조소명, 「권력의 기원에 대한 탐색과 주체의 불안 - 이청준 소설 「소문의 벽」을 중심으로 -」, 『국제언어문학』 제55호, 국제언어문학회, 2023, p.157.

74) 광정연, 「서평안삼환 저:<괴테, 토마스 만 그리고 이청준>, 세창출판사 2014」, 『인문과학연구』 제20호, 인문과학연구소, 2015, p.192.

활동을 시작함과 동시에 좋은 출발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삼아 바로 졸업을 한 후 사상계에 입사하고 1967년 그의 대표작 중 하나인 '병신과 머저리'를 내면서 동인문학상을 수상하였다.<sup>75)</sup>

1971년 일지사에서 첫 창작집인 『별을 보여드립니다』를 출간하기도 하였고 1972년에는 두 번째 소설집 『소문의 벽』을 발간하기도 하면서 그의 작가 인생은 계속해서 탄탄대로를 달렸다. 이어서 70년대 후반에서 1980년대에도 '잔인한 도시'로 이상문학상을 수상하고, 작품집인 『비화밀교』를 내어 대한민국문학상을 받았다. 더 나아가 1980년대에 우리나라도 5.18 광주사태와 같은 새로운 계급 갈등과 사회구조의 폭력성 속에서도 이청준의 작품에서는 인물들이 더 이상 일방적인 폭력 속에서 불안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법 속에서 '스스로' 질문을 던지는 주체가 된다는 특징이 보인다.<sup>76)</sup>

1990년대에도 '자유의 문'으로 이산문학상을 받았고, '빼꾸기와 오리나무', '할미꽃은 봄을 세는 술래란다'를 내며 동화작가로도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렇게 말년에도 다양한 작품을 만들고 시도를 하였기 때문에 21세기 문학상을 받았다. 그리고 그는 2000년대에 교수 생활도 하다가 2006년 폐암 판정을 받고 투병하다 결국 2008년 7월 31일 68세로 세상을 떠나, 고향 진목리에 안장되었다.

#### 《참고문헌》

- 최종배, 「이청준의 자전작 연작 소설 '가위 및 그림의 음화와 양화'에 대한 정신분석적 고찰」, 『정신분석』 제2호, 용인정신병원 정신건강의학과, 2017, pp.17~27.
- 마희정, 「이청준의 <눈길>에 나타난 '모성성」, 『현대소설연구』 제47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11, pp.197~229.
- 조소명, 「권력의 기원에 대한 탐색과 주체의 불안 - 이청준 소설 「소문의 벽」을 중심으로 -」, 『현대소설연구』 제47호, 국제언어문학회, 2023, pp.157~183.
- 곽정연, 「서평안삼환 저:<괴테, 토마스 만 그리고 이청준>, 세창출판사 2014」, 『인문과학연구』 제20호, 인문과학연구소, 2015, pp.189~193.
- 김소륜, 「이청준 소설과 '정동(affect)'의 글쓰기 - 1980년대 작품을 중심으로 -」, 『국제어문』 제94호, 국제어문학회, 2022, pp.9~29.

---

75) 위의 논문 p.19.

76) 김소륜, 「이청준 소설과 '정동(affect)'의 글쓰기 -1980년대 작품을 중심으로 -」, 『국제어문』 제94호, 국제어문학회, 2022, p.15.

## 이청준 서편제 & 선학동 나그네

-서편제와 선학동 나그네를 읽고

20231071 국어국문학전공 이정우

이청준의 '서편제'와 '선학동 나그네'는 이청준의 남도 사람이라는 연작 단편소설 중 일부이다. 이청준의 남도 사람은 '한'이라는 명확한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 '한'을 소리로 승화시키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남도 사람의 첫 번째 연작인 '서편제'이다. 전체적인 내용으로는 어릴 적 눈먼 누이를 버리고 떠난 것이 한 이 된 나그네가 누이의 종적을 좇아 떠도는 이야기로 서편제에서는 어릴 적 소리꾼인 아버를 따라 방랑했던 나그네를 중점적으로 다룬 이야기로 그가 어미를 살리지 못해 누이의 눈을 멀게 한 아버지에게 품은 '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그가 품은 '한'은 결국 빛을 잃은 누이가 뱉어내는 소리에 대한 집착으로 이어지는 오이디푸스 적인 서사 또한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청준의 '서편제'는 연작으로의 서사물로써 모범을 보인 작품이다. 이를 보여주는 것이 '서편제', '소리의 빛', '나그네', '새와 나무', '다시 태어나는 말'로 이어지는 연작들이 '서편제'의 전·후편이라 말할 수 있다. 여기서 작품마다 이청준 특유의 중층적인 이야기의 구조와 각각 다른 이야기를 풀고 있으면서 언어의 순수성 혹은 생명성이라는 전체적인 주제를 포괄하고 있다는 점이 돋보이기도 한다. 더 정확히는 '서편제'라는 작품을 기점으로 전체적인 이야기가 참다운 언어가 무엇인가를 밝히기 위해 만들어진 가설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고 더 나아가 화해와 용서를 기본으로 이어진 대립의 차원이다. 즉 문명사회의 언어보다 자연과 교감하는 언어와 대화가 내면에서부터 진정성이 드러나고 타인들과 화해한다는 성찰을 통해 나오는 언어야말로 진정성 있는 말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sup>77)</sup>

선학동 나그네는 남도 사람의 세 번째 연작으로 주인공의 '한' 그 자체인 눈먼 누이를 다룬 이야기이다. 육신의 눈을 잃어 소리로 세상을 보는 누이는 자신에게서 빛을 앗아간 아버지에게 원한을 품지 않고 용서하며 '한'이라는 감정으로 원동력 삼아 자신의 소리를 더욱 아름답게 한다. 이처럼 선학동 나그네에 담긴 '한'의 정서는 누군가를 원망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닌 용서하고 받아들여 긍정적인 방향으로 승화시키는 것이라고 보여준다.<sup>78)</sup>

### 《참고문헌》

이성준, 「이청준 소설의 시·공간적 특징과 알레고리-연작소설 『서편제』를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15호,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11, pp.265~291.

김성경, 「이청준 소설 연구 외디푸스 서사 구도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2, pp.1~135.

권희돈, [소설 서편제와 영화 서편제 연구], 『새국어교육』 제70호, 한국국어교육학회, 2005, pp.483~498.

77) 권희돈, 「소설 서편제와 영화 서편제 연구」, 『새국어교육』 제70호, 한국국어교육학회, 2005, pp.486~488.

78) 김성경, 「이청준 소설 연구 외디푸스 서사 구도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청준(李清俊)이 바라보는 세상

-이청준의 문학사적 의의

20241047 인문학부 소정민

이청준 작가는 1939년 일제강점기에 태어나 50년 6·25 전쟁을 겪고 성인이 되고 난 후에는 우리나라가 민주화를 지금까지 이룩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적인 문제들 예를 들어 4·19혁명, 5·16 군부 쿠데타, 5·18 민주화 혁명, 6월 혁명 등등의 사건들을 그 시기에 같이 느끼면서 동시에 작품을 써왔기 때문에 그의 작품에는 이 시기에 시대적 고충과 성장통에 대한 자신의 견해와 생각 그리고 표현방식들이 많이 남아있다.

60년대에 이청준이 막 성인이 되었을 무렵 4·19혁명에 이어 5·16 군부 쿠데타가 발생하는데 이때 당시 이청준은 이러한 사건들을 보면서 억압적인 획일주의 안에서 ‘자유’를 환상의 영역과 이념적 영역에서의 기본적인 바탕으로 작품들을 선보였고, 이뿐만 아니라 추가로 상실된 4·19의 자유 이념과 현실 즉 ‘자유’라는 것을 ‘자기 진실의 세계’라는 이름으로 재형상화하였다. 이 당시 이청준의 작품 속에서 ‘자기 진실’은 계속해서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함과 동시에 소설이 현실에 복수 행위가 되기도 하는데 그 시작은 자아에 탐색과 내면에서부터 나타나 질서를 갖추는 세계가 탄생하는 것이 원인이고 소설의 중심이 되는 ‘자기 진실의 세계’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서 실패한 4·19 이념이, 소설이라는 상상적 질서 속에서 재구성이 진행됨에 따라 이청준의 입장에서 현실에 보복함을 뜻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이청준의 ‘퇴원’이라는 작품에서 보인다. 이 작품에서는 내면의 형성을 자아 회복 문제로 다루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주인공은 처음부터 아버지와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해 자아가 없는 상태로 처음에 등장하지만, 나중에 주인공이 친구인 ‘준’의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위궤양’의 치료함과 동시에, 내면에서는 ‘자아’를 점차 찾게 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퇴원’이라는 작품은 이청준의 색깔과 이념이 들어간 실질적인 기점이 되는 작품으로 평가되기도 한다.<sup>79)</sup>

80년대에도 마찬가지로 이청준은 5·18 광주사태와 6월 항쟁과 관련된 내용을 작품 속에 자연스럽게 녹여 표현했다. 하지만 전의 작품들과는 조금은 다른 성향과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바로 이분법적인 행동을 중심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개인을 옹호하기 시작하였고 이는 즉, 폭력 앞에서 무서움을 말하는 것이 아닌 이분법적인 행동으로 ‘스스로’ 질문을 하는 주체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특징이 나타나는 이유 중 하나로 제3의 행동, 그리고 소설을 통해 현실에 대한 도전장을 내밀려는 작가 특유의 태도로 볼 수 있고, 곧 80년대 이청준의 작품에 기틀이 되었다.<sup>80)</sup> 이에 대한 특징이 나타난 작품 중에서는 ‘새를 위한 악보’에서 사람들은 더 이상 사지 보행을 하지 않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존재론적 고찰과 ‘비화밀교’에서 그믐날의 등반이 갖는 의미와 제왕산이 지닌 비밀을 바탕으로 ‘소설쓰기’ 가능성 그리고 ‘흐르는 산’에서의 남도섭은 과연 무불 스님은 정말 한 번도 누워서 잠을 잔 적이 없는지, 스님은 왜 직접 아픔의 강물로 흐르지 않는지 등등 많은 80년대 작품에서 ‘스스로’ 질문을 하는 특징이 나타난다.<sup>81)</sup>

79) 박은태, 「이청준의 1960년대 소설 연구」, 『현대문학의 연구』 제28호, 한국문학연구학회, 2006, pp.2~5.

80) 노태훈, 「순수한 자유에 도달하는 길- 이청준의 1980년대 작품을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제90호, 한국문학회, 2022, pp.3~5.

81) 김소륜, 「이청준 소설과 ‘정동(affect)’의 글쓰기 - 1980년대 작품을 중심으로-」, 『국제어문』 제94호, 국제어문학회, 2022, pp.14~15.

《참고문헌》

박은태, 「이청준의 1960년대 소설 연구」, 『현대문학의 연구』 제28호, 한국문학연구학회, 2006, pp.239~269.

노태훈, 「순수한 자유에 도달하는 길- 이청준의 1980년대 작품을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제90호, 한국문학회, 2022, pp.587~613.

김소륜, 「이청준 소설과 '정동(affect)'의 글쓰기- 1980년대 작품을 중심으로-」, 『국제어문』 제94호, 국제어문학회, 2022, pp.9~29.

## 조정래의 발자취를 따라서

-조정래의 생애

인문학부 20241063 유채하

조정래(趙廷來)는 1943년 8월 17일, 아버지 조종현과 어머니 박성순의 4남 4녀 중 위로부터는 넷째, 아들로서는 둘째로 전라남도 승주군 선암사에서 태어났다. 부친은 대처승이었다. 선암사의 부주지로 있으며 사회개혁을 위해 사담(寺畵)을 조각인들에게 분배했다가, 주지와 충돌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어, 1947년 선암사를 떠나 순천으로 가게 된다. 그곳에서 1948년 10월에 일어난 여순 사건의 수난을 겪는다. 이때의 모습은 '태백산맥'의 스님의 모습으로 형상화되었다.

이후 조정래는 1949년 순천 남국민학교에 입학했다. 그 당시 부친은 수감 중이었다가, 1950년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났다. 그의 가족은 논산으로 이사를 한 후, 6.25가 터지자 북소로 피난 가게 되었다. 당시 1953년 전쟁 중 부친은 별교 상고 교사였으나, 그는 학교에 도시락을 싸가기도 어려운 형편이었다. 이 시기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것으로 회고되는 시기였지만, 그의 가족은 여전한 생활고에 시달렸다. 1956년 그의 부친은 광주 제일고등학교로 직장을 옮기면서, 그는 광주서중에 입학하게 된다. 3학년 때 그림 그리는 맛을 터득한다. 화가를 꿈꾸는 동시에도 그는 별교에 대한 향수를 느꼈다.

몇 년 뒤, 1959년 부친이 서울 보성고등학교로 직장을 옮기면서 조정래는 서울살이를 시작했다. 가난으로 인해 그는 수학여행도 참석하지 못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7년이라는 시간 동안 물지게를 어깨에 지고 산비탈을 올라야만 했다. 그는 성인이 된 후, 1962년 동국대학 국문과 입학하였다. 이후 1966년 육군 사병으로 입대 후 신병훈련을 마치고 카투사가 되었으며, 1967년 일등병인 몸으로 시인 김초혜와 결혼하였다. 82)

조정래의 작가 활동은 오영수, 황순원, 안수길 세 분의 공동 추천으로 시작되었다. 1970년 《현대문학》에 단편소설 '누명'과 '선생님 기행'이 추천되어 등단했으며, 1972년 중경고등학교로 직장을 옮긴 후 소설 쓰기에 더 몰두하였다. 그는 1973년 10월 유신의 여파로 교직을 떠난 뒤, 문인협회에서 발행하는 《월간문학》 편집 일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1976년 1월 문인협회를 떠나 《소설문예》를 인수하였다. 그곳에서 8월 호부터 발행을 시작하게 되면서 각종 소설을 집필했다. 1977년 9월 호 이후부터는 《소설문예》의 경영권을 넘긴 후, 1978년 6월 '민예사'라는 출판사를 차렸으나, 1년 채 지나지 않은 1980년 출판사 경영일선에서 물러났다.

조정래는 1983년부터 장편 '태백산맥'을 《현대문학》에 연재하기 시작했다. 1만 5천 장 분량으로 분단 40년의 역사를 쓰고자 하였으며, 1986년 '태백산맥' 제1부를 4천 5백 장으로 완결지었다. 세 권의 단행본으로 한길사에서 간행하였다.

조정래의 문학 바탕에는 전라도의 짙은 토속성이 깔려있다. 그가 써가는 문장들을 따라가다 보면 문학적 성격과 문학적 이슈를 동시에 담아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83)

82) 김옥연, 「조정래 소설 연구 : 분단소설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pp.11~16.

83) 위의 논문, pp.17~20.

《참고문헌》

김옥연, 「조정래 소설 연구 : 분단소설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pp.5~90.

**조정래의 『태백산맥(太白山脈)』에 관한 고찰**  
-조정래의 태백산맥(太白山脈) 작품소개 및 문학사적 의의

국어국문학전공 20231048 송문규

‘태백산맥(太白山脈)’은 조정래 작가가 지은 대한 역사소설로 1989년 총 10권으로 한길사에서 간행되었다가 출판사를 옮겨 1995년 해냄출판사에서 재간행되었다. 이 작품은 작품집 ‘유형의 땅’, ‘불놀이’ 등을 통해 6·25전쟁과 그로 인한 분단의 역사를 꾸준히 탐구해온 조정래 작가의 대표작이고, 이 땅의 분단과 전쟁 문제를 다루기 위해 수백 명이 넘는 다양한 인물을 창조한 작품이기도 하다. 이렇게 창작된 인물들은 각각 다양한 역사적 환경을 보여주는 주체라 할 수 있다. 또한 1980년대 들어 그동안 한국 사회를 통제해 왔던 반공 이데올로기의 구속이 약해지면서 6·25전쟁과 그 전후 과정의 실체를 객관적으로 탐구하여 드러내는 일이 가능해진 덕분에 이 같은 대작의 탄생을 가능했다.<sup>84)</sup>

‘태백산맥’은 총 4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는 여순사건이 종결된 직후부터 1948년 12월 빨치산 부대가 울어지역을 해방구로 장악하는 데까지를, 제2부는 여순 사건 이후 약 10개월 뒤까지를, 제3부는 1949년 10월부터 1950년 12월까지 6·25전쟁 발발 전후를, 제4부는 1950년 12월부터 1953년 7월 휴전 협정 직후까지의 시기를 각각 배경으로 하고 있다. 여순사건의 종결에서 휴전 협정에 이르기까지, 이후의 한국 현대사의 성격을 결정짓는 중대한 시기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sup>85)</sup>

이 작품의 서사를 이끄는 기본 관심사는 좌우 갈등이다. 등장인물 염상진을 중심으로 한 좌익 세력과 토착 지주 및 자본가를 중심으로 한 우익 세력 사이의 갈등이 전쟁으로 통치 권력의 성격이 수시로 뒤바뀌는 혼돈의 역사 전개를 따라 펼쳐진다. 그사이에 놓인 민중들과 지식인들은 저마다의 길을 택해 나아가는데 그 과정에서 선택과 좌우의 갈등이 이 작품을 채우는 중요한 내용 중 하나이다. 이처럼 좌우의 갈등과 혼돈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노선 선택은 개인적 차원에 속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기도 한데, 토지모순/민족모순/분단모순 등 갖가지 모순이 중첩되어있는 현실과 그것을 해소하고 새로운 역사를 열고자 하는 시대적 양상이 작용하고 있었다.

‘태백산맥’은 저마다 순수한 뜻을 세우고 그것을 실현하고자 하는 치열한 삶을 살았던 중심 인물 대부분이 그 뜻의 실현에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그림으로써 이 시기 역사 전개에 비극성을 증언하고 동시에 그들이 해결코자 했던 과제들이 해결되지 못하고 이후 역사의 과제로 남겨졌음을 강조한다. 또한 한국전쟁을 그 자체로서가 아니라 역사 전개의 과정으로 이해하고자 한 작품이다. 한국전쟁의 전 단계에 해당하는 해방공간을 중심 배경으로 설정한 것도 작가의 의도이다. 한국 소설에 그려진 해방공간은 좌/우의 대립이란 단순 도식으로 추상화되어 있다.

‘태백산맥’은 이처럼 의미 없는 역사를 복원하는 한편, 그것을 딛고 해방공간, 한국전쟁으로 이어지는 한국사의 중요시기를 동적, 총체적 관점에서 그려낸 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sup>86)</sup>

**《참고문헌》**

- 권은미, 「조정래 《태백산맥》 연구」, 『울산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4. pp.18~58  
정호웅, 『태백산맥(太白山脈)』,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84) 권은미, 「조정래 《태백산맥》 연구」, 울산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울산대학교 대학원, 2014. 초고.

85) 위의 논문 pp.18~20.

86) 정호웅, 『태백산맥(太白山脈)』,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조정래의 『아리랑』 작품**  
-아리랑 작품소개와 문학사적 의의

국어국문학전공 20231049 송종현

조정래의 『아리랑』은 제4부 전12권으로 구성된, 일제강점기 당시 식민지 조선인들 삶에 대한 서사 작품이다. ‘아리랑’은 한국 소설사에서 민족주의 독립운동가들의 절대 비타협 존재를 부각하고 역사 전개 속에서 민중의 역할을 새롭게 살린 한국 근현대 역사소설 속에 자리 잡은 의미 있는 작품이다.

이 작품은 일본 제국주의에 대항하거나 지지하는 다양한 공감연대가 있다. 왜냐하면, 작가 조정래는 식민지 시대의 역사를 총체화하려는 의도로, ‘아리랑’의 서사에 유랑의 삶을 산 선조들의 다양한 삶들이 내포되어 있고, 이러한 삶들이 조선 내부와 외부에서 펼쳐지고 있으며, 그들의 행위는 곧 조선의 독립이라는 목표를 향해가는 공감연대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조정래의 ‘아리랑’은 다양한 연대들이 출현하고 해체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지만, ‘나라의 독립’이라는 거들의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목표임을 알 수 있다. 일제의 억압 아래 조선의 해방을 위해 노력한 조선인들의 공감연대와 그에 반하여 작동한 공감연대를 재현한 ‘아리랑’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아리랑’에서 출현하는 공감연대의 정체성은 심정적인 공감을 유지하는 연대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현실타파를 위한 당시 심정적 교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의 의견에 자신도 함께 동의하여 서로 연결·접속 과정을 거쳐 어떤 일을 도모하는 조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동학잔당, 의병, 독립군, 만세꾼, 학생들, 유생들, 하와이 이주 조선인들, 대종교인들, 사회주의자들이다. 또한 조선인들의 공감연대에 반하는 적대세력, 즉 일본 제국주의에 협력하는(친일파) 공감연대들도 존재한다.<sup>87)</sup>

‘아리랑’은 ‘공감연대’라는 의미를 두고, 일제의 제국주의에 대한 조선의 독립이라는 이분법적 사고가 들어간 작품이라고 볼 수 있지만, 결국 절대선과 절대악으로 형상화되던 식민지 상황에 놓여있던 조선인들의 삶은 실제로 보편적 이분 구도에서 벗어나 있었고, 그러한 작가의 의도는 다양한 공감연대의 발생, 연결접속, 주체화, 비껴가기 과정을 통해 구체화했다. 즉 ‘아리랑’은 이분 구도라는 점에 주목하는 것 같지만, 정작 조선의 독립과 조선의 지배라는 이분 구도의 틀을 해체하고 그에 대한 비껴가기를 보여주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아리랑’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다양한 공감연대의 작동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다.<sup>88)</sup>

**《참고문헌》**

우수영, 「조정래 『아리랑』에 출현하는 공감연대 고찰」, 『현대문학이론연구』, 현대문학이론학회, 2014, pp.184~201.

87) 우수영, 「조정래 『아리랑』에 출현하는 공감연대 고찰」, 59호, 『현대문학이론연구』, 현대문학이론학회, 2014, pp.184~186.

88) 위의 논문, pp.186~190.

## 글로 된 길을 걸어온 김승옥에 대하여

-작가 김승옥의 생애

인문학부 20241108 한별이



소설가 김승옥(金承鈺)은 1941년 일본 오사카에서 출생하여 귀국 후 전라남도 순천의 순천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이후 1962년 서울대학교 불어불문학과 재학 중 한국일보 신춘문예에서 단편작 '생명연습(生命演習)'이 당선되며 등단한다. 등단 후 김현, 최하림과 함께 발간한 동인지 『산문시대(散文時代)』 외 '환상수첩(幻想手帖)', '서울, 1964년 겨울', '무진기행(霧津紀行)' 등 여러 작품을 쓰며 활발하게 활동을 이어간다. 그중에서도 1964년 10월 『사상계(思想界)』에 발표한 '무진기행'과 제10회 동인문학상을 수상한 '서울, 1964년 겨울'은 김승옥의 대표작으로, 문학사적 의미가 높다. 김승옥은 1970년 이후, '서울의 달빛 0장' 외 몇몇 작품을 드물게 발표하다가 장편 소설 '먼지의 방'을 미완성으로 남겨둔 채 1980년 광주민주화 운동을 기점으로 사실상 절필하였다.<sup>89)</sup>

우리가 발표할 '무진기행'과 '서울, 1964년 겨울'은 주로 1960년대 시대 상황인 4.19 혁명과 5.16 군사 쿠데타와 많은 연관이 있다. 특히 '서울, 1964년 겨울'은 1960년대 쿠데타 이후 경제가 급성장한 당시 근대적 도시화가 진행되던 서울의 겨울을 배경으로 한다. 4.19혁명과 5.16 군사 쿠데타로 이어지는 격동의 1960년대를 20대의 나이로 바라본 김승옥은 예민한 감수성을 바탕으로 당대의 삶을 살아가는 인간들의 존재 방식을 미시적인 관점으로 그려내기 시작했다. 그러므로 두 사건은 김승옥이 쓰던 작품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sup>90)</sup>

### 《참고문헌》

김영희, 「김승옥 단편소설 연구: 작가의 현실 인식과 시대적 삶의 양상」,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6, pp.1~81.

백영옥, 「김승옥 소설의 공간과 인물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문예창작학과, 2003, pp.1~88.

순천만국가정원 누리집, 『김승옥문학관』.

<https://scbay.suncheon.go.kr/wetland/experience/0023/>

최재봉, 「'김승옥의 축수'를 더듬으며」, 『한겨레신문』, 2005.11.17.

89) 순천만국가정원 누리집, '김승옥문학관' <https://scbay.suncheon.go.kr/wetland/experience/0023/>

90) 김영희, 「김승옥 단편소설 연구: 작가의 현실 인식과 시대적 삶의 양상」,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6, pp.8~12.

## 김승옥 작가의 도피처이자 안식처 무진

-「무진기행」작품소개

국어국문학전공 20231038 박이삭

‘무진기행(霧津紀行)’에서 ‘무진’이란 ‘안개 나루’라는 뜻으로 자욱한 안개가 있어 무엇 하나 뚜렷한 것이 없는 공간을 뜻한다.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주인공 윤희중은 동거하던 여자가 자신을 떠나고 남편과 사별한 제약회사의 딸을 만나게 되어 결혼하게 된 상황이다. 고향인 무진 사람들은 윤희중을 그들 중에서 가장 출세한 사람으로 여기지만, 현실은 제약회사의 대표인 장인어른과 아내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다. 무진 방문도 자신의 선택이 아닌 장인어른의 제약회사에 주인공 윤희중을 전무로 승진시키는 동안 시간을 보낼 곳이 없으니, 고향에 가보라는 아내의 권유를 통해 여행을 시작하게 된다.

작품 속의 도시 무진의 특성을 살펴보면 작가가 지어낸 가상의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다. 무진은 명산물이 없기에 역설적으로 희망을 차단하는 안개가 명산물이 되는 도시이다. 여기서 명산물이란 도시의 희망, 발전, 힘을 의미한다. 그러한 명산물이 없다는 것은 도시에 희망이 없고 죽어가는 늙은 도시이고,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다는 것이다. 이런 도시의 특성을 통해 무진에 사는 사람들의 특성을 알 수 있다. 인간의 욕구는 자기애적, 충동적, 파괴적인 욕구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인간의 욕구가 파멸의 길로 가지 않도록 욕망을 발효시키는 사회가 마련되어야 한다. 무진이라는 도시는 그러한 사회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는 죽은 도시임을 알 수 있다.<sup>91)</sup>

주인공에게 무진이라는 도시는 어떤 의미일까? 주인공 윤희중에게 있어서 무진은 자아를 발견하는 생명의 장이 아니라 자기방어의 장소이다. 그가 무진에 대해 회고할 때 이렇게 말했다.

오히려 무진에서의 나는 항상 처박혀 있는 상태였었다. 더러운 옷차림과 누우런 얼굴로 나는 항상 골방 안에서 뒹굴었다 … (중략) … 골방 안에서의 공상과 불면을 쫓아 보려고 행하던 수음과 곧잘 편도선을 붓게 하던 독한 담배공초와 우편배달부를 기다리던 초조함 따위거나 그것들에 관련된 어떤 행위들이었다.

여기서 주인공에게 고향 무진이란, 힘들 때마다 문득문득 떠오르는 곳, 편안할 때는 생각나지 않는 곳, 일자리를 잃고 동거녀가 떠났을 때 찾던 곳, 현재는 제약회사의 전무가 되기 위해 잡음을 피해 내려와 있는 곳이다. 즉 주인공에게 무진이란 현실의 스트레스를 피해 도망가는 도피처이자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곳임을 나타낸다. 현실이 힘들 때 주인공에게 힘을 주는 긍정적인 공간이기도 하지만, 주인공에게 제한을 주는 양날의 검 같은 공간이기도 하다. 하지만 작품에서 무진의 긍정적 요소보다는 부정적 요소를 강조하고 있다. 주인공이 힘들 때 상황을 회피하는 장치로 크게 다루어졌기 때문이다. 현실에서는 장인어른과 아내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지만 고향에서는 출세한 인물로 인식되기 때문에 주인공의 자존감을 회복시켜주는 역할

91) 정혜선, 「『무진기행』 연구: 무절제와 무책임의 공간으로서 무진기행 다시 읽기」, 『목원국어국문학』, 목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002, pp.230~233.

을 한다. 무진이라는 현실 도피처에서 과거의 인물을 죽이고 새로운 인물로 태어나 잠시나마 새로운 생활을 만끽하는 다중 인격적 요인도 엿볼 수 있다.

윤희중은 낭만과 자기의 행복 대신 세상의 이익을 선택한 현실적인 인물이다. 이러한 모습에 오늘날 현대인의 모습이 투영된다.

#### 《참고문헌》

정혜선, 「'무진기행' 연구: 무절제와 무책임의 공간으로서 무진기행 다시 읽기」, 『목원국어국문학』, 목원대학교, 2002, pp.225~255.

## 서울, 1964년 겨울

- '서울, 1964년 겨울' 작품소개

사학전공 20231083 정수환

김승옥(金承鈺)의 단편소설인 '서울, 1964년 겨울'의 주된 등장인물은 김 씨인 나와, 대학원생인 안 씨, 비루해 보이는 사내까지 세 명이다. 김 씨의 시점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그는 시골 출신으로 육군 사관학교에 지원했다 실패한 뒤 구청에서 일하는 중인 주변부 계층이다. 그에 비해 안 씨는 부잣집 장남이면서 대학원생이다. 두 사람의 파리를 사랑하는지, 꿈틀거리는 것을 사랑하는지에 대한 대화에서 서로의 의견에 미묘한 계층적 차이가 드러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 둘에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는데, 바로 밤에 거리를 돌아다니며 불이 들어오지 않는 가로등과 창문, 쓰레기통에 버려진 초콜릿 포장지의 개수 등 타인에겐 무의미한 것들에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었다. 둘은 공통점을 찾은 뒤 활발하게 대화하며 함께 술집을 나서려던 찰나, 곁에 있던 사내가 말을 걸어와 함께 나서게 된다. 저녁을 먹자며 들어간 중국 요릿집에서 사내는 '돈을 써 버리기로 결심했다.'라며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급성 뇌막염에 걸린 아내가 오늘 낮에 죽었고, 그런 아내의 시체를 병원에 팔았다는 이야기였다. 아내의 시체를 팔고 받은 돈인 사천 원을 오늘 밤이 지나가기 전에 다 써버리고 싶다고 사내는 안 씨와 김 씨에게 돈이 다 없어질 때까지 함께 있어 주기를 부탁했다. 그들은 밥을 먹고, 넥타이를 구매하고, 꿀을 먹고, 택시를 타 불길에 치솟는 곳에 도착해 화재 현장에 돈을 던짐으로써 돈을 전부 쓸 수 있었다. 이후 함께 여관으로 향한 그들은 혼자 있기 싫어하는 사내를 뒤로하고 잠든다. 날이 밝은 뒤 안 씨는 김 씨를 깨워 사내가 자살했음을 알리고, 둘은 일에 휘말리기 전에 죽은 사내를 외면하고 헤어져 서로의 길을 간다.

작품 속에서의 부잣집 장남인 안 씨와 주변부 계층인 김 씨는 계층적 차이 때문인지 서로의 의견에 공감하지 못한다. 대학원생 안 씨는 꿈틀거림을 사랑하냐는 질문에 꿈틀거리는 것의 예시로 데모를 이야기했으나 그러한 경험이 없던 김 씨는 공감하지 못하고, 꿈틀거리는 것을 살아있는 사람의 아랫배가 들락날락하는 것으로 표현한다. 이 대화를 통해 나이가 같아도 살아온 환경과 경험, 계층적인 차이가 세대의 연대를 방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두 사람의 대화는 단절과 공백을 포함하면서도 가까스로 이어지는데, 이 둘의 우연한 만남에 '사내'가 끼어들면서 이야기는 다른 방향으로 전환된다. 후반부의 이야기는 '나'와 '안'이 '사내'에게 갖는 거리감과 혐오, 그리고 연민의 실패와 애도의 회피로 이어진다. 사내의 이야기를 들은 둘은 안타까운 현실을 살고 있는 '사내'에게 형식적인 애도를 표하지만, 그의 처지에 연민을 갖지 못한다. 사내가 죽은 것을 알았음에도 그들은 현장을 외면하고 애도를 회피한 것은 그 사내가 가난뱅이 냄새를 풍기는 데다 아내의 시체를 판 사람이라는 데서 오는 혐오감의 표현일 것인데, 이는 그들 속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을 타인에게 투사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두 사람의 마지막 대화는 시민적 연대에 실패한 소시민의 불안을 보여준다.<sup>92)</sup>

### 《참고문헌》

류동규, 「시민성 교육을 위한 김승옥 소설 읽기」, 『국어교육연구』, 국어교육학회, 2024, pp.263~289.

92) 류동규, 「시민성 교육을 위한 김승옥 소설 읽기」, 『국어교육연구』, 국어교육학회, 2024, pp.282~283.

## 김승옥, 새 시대의 감성과 건조함을 그려내다

- '무진기행'과 '서울, 1964년 겨울'의 문학사적 의의

국어국문학전공 20221082 이희연

1960년대 문학은 순수문학적 경향을 띠던 1950년대 문학에 대한 반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1950년대 문학과 질적으로 다르다. 특히 1960년대 중반에는 4·19 혁명과 5·16의 여파로 인해서 작가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그들이 처한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대응하기 시작했다.<sup>93)</sup> 김승옥은 '무진기행(霧津紀行)'과 '서울, 1964년 겨울'을 통해 극단적인 개인주의, 도시 문명으로 인한 인간성 상실을 다루면서 신세대 모더니즘적 경향을 나타냈다.<sup>94)</sup>

'무진기행'은 "안개로 상징되는 허무에서 벗어나 일상 공간으로 돌아오는 한 젊은이의 귀향 체험을 통해 개인의 꿈과 낭만은 용인되지 않는 사회조직 속에서 소외당한 현대인의 고독과 비애"<sup>95)</sup>를 그리고 있으며 '서울, 1964년 겨울'은 "꿈틀거리는 것을 사랑하는 서울 거리의 소시민 셋을 등장시켜 그들의 행적을 통해 시민적 삶의 가치"<sup>96)</sup>를 따져 보고 있다. 대상을 대하는 예민한 감성과 이국적이며 애상적인 그의 문체가 돋보인다.

두 작품의 인물들은 무책임한 한편 비굴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무진기행'에서는 고향 무진에 내려온 도시 청년 윤희중이 여선생 하인숙과 무책임한 정사를 벌이기까지의 과정을 통해 무질서, 몽롱한 추억, 감상주의와 같은 신세대의 의식과 감성이 예리한 감각으로 그려져 있다.<sup>97)</sup> 그리고 '서울, 1964년 겨울'에서는 술집에서 만난 스물다섯 살 대학원생 '안'과 구청 직원 '김', 그리고 아내의 시체를 병원에 판 돈으로 둘에게 붙여 슬픔과 외로움을 달래고자 하는 가난한 서적 외판원이 물리적으로는 같은 공간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지만, '안'과 '김'은 끝내 자살한 서적 외판원을 철저히 외면한다. 이후 '안'과 '김'은 조로운 자신들의 의식을 성찰한다.

김승옥은 "1950년대의 문학적 엄숙주의에서 벗어나 1930년대의 모더니즘을 성공적으로 계승하고 있다."<sup>98)</sup>고 평가받는다. 특히 '서울, 1964년 겨울'은 "1960년대적 의식의 방향을 특히 개인의 존재라는 면에서 지나치게 감각적일 정도로 형상화"<sup>99)</sup>하고 있으며, "감수성이 뛰어난 언어 표현력이 바탕이 되는 역작"이라고 평가받는다. 따라서 "개인의 의식이 개입되지 않은 세계와 사물에 대한 고정관념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에서 김승옥의 문학적 태도는 감성을 출발점으로 하여 그것을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이성적 인식에 도달하는 것"<sup>100)</sup>이라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김윤식·김우종 외 38인, 『한국현대문학사』, 현대문학, 2022.

윤병로, 『서울, 1964년 겨울』, 한국민족문학대백과사전.

이희정, 『무진기행』, 한국민족문학대백과사전.

93) 김윤식·김우종 외 38인, 『한국현대문학사』, 현대문학, 2022, pp.432~433.

94) 위의 책, pp.439~440.

95) 이희정, '무진기행', 한국민족문학대백과사전.

96) 윤병로, '서울, 1964년 겨울', 한국민족문학대백과사전.

97) 김윤식·김우종 외 38인, 앞의 책, pp.439~440.

98) 이희정, '무진기행', 한국민족문학대백과사전.

99) 윤병로, '서울, 1964년 겨울', 한국민족문학대백과사전.

100) 김윤식·김우종 외 38인, 앞의 책, pp.439~440.

메모

A large, empty rectangular box with a thin black border, occupying most of the page. It is intended for writing a memo or notes.